



2009년 7월 Vol.183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발행인: 송순영, 편집인: 이윤모
 동창회 사무국 및 동창회보 편집국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snuausa@gmail.com

서울대,
 최고
 경영자
 배출
 세계
 5위

<관련 기사 4면>

PSRT STD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1 1068

미주 동문 브레인 네트워크 구성 추진 신임 회장단 사업 목표, 모교 총장도 동의

미주 동창회 10기 임원단(회장 송순영)은 미주 서울대 동문 브레인 네트워크(brain network)를 구성하는 기초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미주의 7천여명 동문들의 방대한 두뇌 자원들을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국내외 한민족 선진화를 위한 지적 자산을 기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구상은 지난 수년간 일부 지역의 관심있는 동문들 사이에 논의되던 두뇌 탱크(think tank) 조직화 움직임에 배경을 두고 송순영 회장단이 취임하게 됨에 따라 그 구상과 협동 규모를 현실화 할 시기가 되었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시카고에서 개

최된 평의회에 참석한 모교 이장무 총장과 새 임기를 앞둔 미주 동창회 10기 임원단과의 조찬 대화에서 실현 가능한 구상을 이 총장이 제시함으로써 새 임원단의 구상이 한 단계 진전을 보게 됐다. 브레인 네트워크 추진안은 구체적으로 3개 전문 분야의 재미 동문 두뇌자원이 파악되는 대로 모교의 기존 두뇌

기관과 그 책임자들과 연계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 총장의 언급을 받음으로써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브레인 네트워크의 당초 취지는 재미 동문들의 두뇌 자원을 규합하여 모교를 세계 정상 대학으로 올리는 과업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발단했다.

이장무 총장은 재미 동문 브레인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는 데 우선 한국의 현실에 긴박히 필요하며 모교의 기존 브레인 탱크와 연계가 수월한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환경과 인간 존속 여건, 모국의 금융과 경제 순발력 강화 등 3개 과제에 참여할 재미 동문 두뇌 자원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연계할 것을 송순영 회장단에 당부했다.

그 시행 방안에 관해 송순영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자택에서 취임을 앞둔 첫 임원회를 열고 안전 중 하나로 토의했다. 임원회에서는 두뇌 자원 참여 동문들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각 지부 회장단과 평의원, 전문가 동문들 등 기존 인맥을 통한 방안이 우선 거론됐다. 그리고 별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와 동문회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문 두뇌 자원을 파악하며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한다는 안이 토의됐다.

송순영 회장은 이 과제에 대해 관심있는 평의원들, 각 지부 회장단,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추가로 접촉을 갖고 위원회 구성과 인적 자원 파악 방안을 구체화하여 추후 회보를 통해 알리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제10기 미주 동창회 회장단 출범을 상징하는 시카고 다운타운과 그랜트 파크의 버킹햄 분수대

특 집
 북 한 의
 진상

사회과학적 설명 불허하는 북한 (5면)
 “북한은 개혁역행·교역편중·군사경제” (6면)
 “나는 김현희의 치과 주치의였다” (7면)

신임 회장 인사

모교의 자랑스러운 미주 동문회 되도록

제10대 회장 송순영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 제10대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총 동창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앞으로 2년 동안 총동창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교 서울대학교는 세계 대학 중 10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며 세계화를 위해 혁신적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국 총동창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막대한 액수의 모금을 하여 장학 건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국은 이제 Developed Country로 인정받으며 일류 선진국을 목표로 눈 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첫째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발전 과정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모교나 한국 발전에 걸맞지 않게 뒤떨어진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 선배들의 제언에 따라 소위 Think Tank와 같은 개념의 Brain Network를 시작 하고자 합니다.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각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학자들과 실무진에서 성공한 동문들을 찾아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적 자원을 형성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지식의 교환, Seminar를 통하여 얻을 Idea와 최고 지식으로 어느 날 우리 모국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이런 Network을 발전시키면서 우선 미주의 모교 분교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년간 임기 중 얼마나

Brain network 구성과 발전 수준 높은 동창회보의 발간 동문간의 유대 관계의 향상 재정확보와 모교 발전 후원 동문들 협동해야 실현 가능

이 과정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믿으며 여러 동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이 전임 이전 회장께서 인명록을 작성하셨기에 이런 Network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외에 모교 후진을 위한 발전 기금, 고국 총동창회의 장학건물 건립기금 모금도 잊어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실무 면으로는 우선 평의원회를 주관(host)하는 업무로 시작 하여 동창회보 편집과 발행,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확보 등이 지금까지 동창회가 하는



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단은 보다 나은 회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어떠한 회보를 원하는지, 계속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비평도 주저없이 함으로써 동창회보가 계속 향상될 수 있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단은 동문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 지부와도 긴밀한 연락을 하고 관악세대의 총동창회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도 모색해보려 합니다.

Brain network의 조성과 발전, 수준 높은 동창회보의 발간, 동문간의 유대 관계의 향상, 재정확보, 모교 발전을 위해 해야 하는 일 등 우리 회장단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회장단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동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가 모교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동창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동문들께서 물심 양면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창회 10기 회장단 첫 임원회 열어 세무 감사위원 7인 위촉키로

재미 서울대 동창회 제10차 임원회가 지난 6월28(일)일 인디애나 뮌스터(Munster)의 송순영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이날 임원회는 김정주 사무총장이 지난 5월 시카고에서 열린 제18차 평의원회에 대한 결과 보고부터 시작해 현안 과제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김 사무총장은 ‘모교 이장무 총장, 임광수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고국 방문단이 지난 5월 평의회의 때 시카고 임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행사 결과와 대해 대단히 흡족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장은 대단히 흡족해 평의원 각자에게 일일이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며 평의원 전체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요구해와 이를 보내드렸다고 김 사무총장은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동창회 사무실을 노스 필드에 개설했으며 회보 팀이 7월호부터 회보를 시카고에서 발간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현안 과제에 대한 토의에서 Web Site구축, 회보발간, 정기임원회 및 편집위원회 개최, 미주 동문 브레인 넷웍(Think Tank) 구축, 2010년도 평의원회 문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웹 사이트에 관해

SNUANET이 지난 몇년간 침체상태에 있었으므로 재할 가능성을 최종 타진하고 여건이 어려우면 별도로 웹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송 회장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 중인 ‘미주 동문 Think Tank 구축’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입력을 받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의견이 제의됐다. 송 회장은 이 과제에 대해 동문중에 뜻있는 전문가들과 추가로 접촉하면서 실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면 좋겠다며 임원회를 매듭지었다.

한편 이날 동창회 세무보고(Tax Report/Audit)를 위한 Audit Sub Committee를 제정해 7명의 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7명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박영규(농대 57• CH) ▶김재영(농대 62• LA) ▶오인환(문리 63• DC) ▶서중민(공대 64• PA) ▶김창수(약대 64• NY) ▶이경림(상대 64• NY) ▶배규영(사대 68• HI). #.



총동창회 집행부 임원들과 편집 위원들이 지난 7월 6일 첫 회의를 했다.

회비 납부 동문 업소 리스트

편집 위원회에서 정리 제안

동창 회비 납부자 명단을 매월 일률적으로 회보에 게재하던 종래의 편집을 좀 더 효율성 있게 바꿀 것과 동문 업소록을 현실화할 것을 편집위원회가 제안했다. 지난 7월 6일 우레옥에서 열린 10기 회장단의 첫 편집회의는 종래의 회비 납부자 명단을 삭제하고 2010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회부 납부자 명단을 월별로 게재하고 매 분기별로 총 납부자 명단을 게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또한 동문 업소록이 현재 11페이지에 달하지만 그중 은퇴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동문들의 업소가 계속 게재되는 것을 우선 시정하며 업소록 광고비를 후원한 실적이 없는 분들

을 삭제하는 등 점차 정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동문 업소록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후원하지 않는 업소들도 동문을 위한 서비스로 계속 게재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시각과 현재의 편집 인력으로는 업소록을 일시에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윤모 편집인은 회비 납부자 명단은 편집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대로 첫호(7월호)부터 실시하며 동문 업소록은 중전대로 7월호에 인쇄하고 점차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실은 회비 납부자 명단 게재 방식을 변경하으로써 회보 독자들이 동문들의 회비 납부 실태와 동문회 예산 현황을

좀더 현실적으로 이해토록 하여 회비 납부회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문 업소록 광고 게재 방식의 변경으로 지면을 절약할 경우 회보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인쇄 페이지수를 ‘다운 사이징’하는 실질적 성과를 볼 것으로 편집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호의 목차

모교 이장무 총장 인터뷰.....	(3)
서울대 최고 경영자 배출 세계 5위.....	(4)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5)
북한은 개혁 여행 경제.....	(6)
“나는 김현희의 치과 주치의였다”.....	(7)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나.....	(8)
동문의 자랑 스런후예 : 김 영 총장.....	(9)

모교 소식.....	(10)
고국 동문 동정	(11)
틀리기 쉬운 우리 말.....	(12)
동창회 예산안: 회비납부 인명록...(13~14)	
지역 동창회 소식.....	(15~17)
동문 모임 순례: 시카고 골든클럽.....	(18)
신간 도서 안내.....	(19)
동문업소록	(20~30)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31)



특별 인터뷰

모교 이장무 총장

지난 5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평의원회에 참석했던 모교의 이장무 총장은 마지막 날 제10기 회장단과의 조찬에서 미주 동문들의 브레인 넷웍을 구성하려는 송순영 회장의 취지를 환영하면서 본지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협동 구상을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재 모국이 당면한 과제,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관심을 갖고 주력할 부면은 환경, 통일과 평화, 금융과 경제 세 부면이며 우선 미주 동문들이 주체별로 두뇌 자원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모교의 첫째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며 그에 따르는 장기적 과제로 통일 문제가 있다.

평화 안정에는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연관되며 그 과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반부 평화라는 거시적인 과제가 있다.

둘째로는, 이 총장에 따르면, 에너지와 환경 즉 Sustainability가 주요 과제다.

지금 세계 여러 대학들이 환경과 미래의 인류 존속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추세며 서울대학교는 Asian Institute for Energy and Environment를 설치하고 환경대학원의 김기호 교수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액션 플랜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학교 본 캠퍼스를 작년에 Sustainable Campus로 명명했다”고 이 총장은 전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가장 고통을 당하는 국가의 하나인 한국에서 요즘은 금융 위기가 큰 이슈라고 이 총장은 강조했다.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서울대학교는 이 총장의 제안으로 금융경제 연구원을 설치하고 정운찬 교수(전 총장)가 원장으로 책임을 맡았다.

서울대 총장과 교수진들이 관여하여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의 런던 시립대학, 옥스퍼드 등 3개 대학에서 지난 3월 한국의 경제 고위 관료들과 대학의 두뇌들이 영국과 넷웍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총장은 밝혔다.

“미주 동문 두뇌자원 파악해 모교 두뇌와 연계하자”

그러나 이 넷웍 구성에서 한국 측의 참여도가 낮았고 소극적이었다고 전한

이 총장은 “같은 경제 이론을 해석하는 데도 한국 전문가들의 관점은 영국, 미국의 관점과 다를 것”이라고 시인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도 동문들의 넷웍이 형성되면 외부적 시너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모교의 브레인 넷웍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의 위기 대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총장은 기대한다.

“세계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한국의 환율이 불안하게 등락하는 이유도 한국의 금융, 재정 전문가들의 위기 대응력이 약한 때문”이라고 이 총장은 지적했다.

한국의 브레인 넷웍과 미국 동창회의 넷웍이 함께 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는 이미 모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의 과제에 맞추어 미국에서 동문들의 두뇌 자원을 규합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총장은 로드맵(Map)의 첫 단계를 제시했다.

환경과 인류 생존 여건,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국도 통일, 재정과 금융 세 가지 주체별로 미주의 동문 브레인들을 동창회에서 파악하여 모교에 알려주면 미주의 분야별 두뇌들이 모교의 상용하는 분야 넷웍 멤버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모교가 주선할 수 있다고 이 총장은 말했다.

“미주의 서울대 동문 두뇌 자원들이 전문분야-주체별로 파악되어

그 리스트를 모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모교에서 분야별 책임자와 기구에서 초청 강연이나 포럼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먼저 미국에서 시작하여 포럼을 개최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교차적으로 모이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활동이 쌓여 가면서 전문 분야에 인제가 많으면 공식 심포지엄과 컨퍼런스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총장은 기대를 편다.

이 총장은 서울대에 정식 교수 2천여 명이 있어 막강한 두뇌 자원이 있다고 밝힌다.

이 총장 취임 후 창의적인 결단이 많았지만 그 중 하나는 서울대의 세계적 위상 높이기와 관련하여 서

화가 침체한데 대해 서울대학교의 관심은 어떠한가를 기자는 질문했다.

이 총장은 “한국이 과학기술 발전에만 몰두한 것을 한국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인본주의와 인문학의 재건을 위해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 갖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영향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약 50명 규모의 위원회 첫 위원장을 이장무 총장이 맡았었다.

이 위원회에서 빈부 격차, 교육, 테러, 환경, 윤리 관점에서 미래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래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

서울대 자체로는 인문학 최고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환경과 인간존속 여건 금융경제 순발력 강화

울대의 역사적인 이름의 근원 찾기를 결단한 것이다. 총동창회(회장 임광수 동문)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립 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과제를 실천에 옮기고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첨단 과학 발전과 경제적인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여 한국의 정신문

정을 설치하여 사회의 지도자들, 기업의 최고 경영자,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 6개월 과정으로 인문학을 이수케 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인문학 프로그램은 이태진 전 인문대학장이 창설하여 현재 그 주임 교수는 변창구 인문대학장이 맡고 있다. 그중에는 세계적 인물들에 관한 강좌가 수십 개 만들

어져서 한국의 리더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학부 과정에는 전공 과목을 제약받지 않고 폭 넓게 공부하도록 ‘다학제 대학(Multi-disciplinary College)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현대사회 고령화 사회 연구소(Aging Society Institute)’를 설치하여 의대, 사회대, 자연과학대 교수들이 함께 연구하며 ‘에이징 소사이어티’에 대비하고 있다.

그 책임은 의대의 박상철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황우석 교수 이후 학술 윤리에 관한 여러 개의 윤리위원회들이 서울대 안에 설치되어 있다.

“이 부면에 관해서도 탄탄한 기반이 있는 미국에서 동문학자들이 넷웍을 만들어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이 총장은 추가했다.

“이런 기존 넷웍과 인스티튜트들에 관해 전체 맵을 그려보면 부족한 것이 떠오를 것”이라고 이 총장은 말한다.

“재미 동창회의 유대가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강한데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고 동문 각자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동문회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이 총장은 본다.

“그러나 세계 유명대학들의 전체 추세에서 동문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명성은 교수, 재학생에 의해 평가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그 졸업생들의 공적에 의해 평가되거든요. 대학 측에 관심에서도 졸업생을 한번 배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에프터 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돕고, 동문들 사이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모교가 돕는 것이 대학의 임무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5월 로스 앤젤리스에 오른 한 서울대 미주 센터는 미국의 대학들과 협력을 추구하는 일련 동문들과 관계확립, 그리고 동문들을 위한 서비스 센터의 역할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란 이 총장은 전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외국 동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스 앤젤리스 미주 센터 개교식에 왔는데 개교식에 120여명 동문들이 참석해서 동문들의 열기가 대단한데 놀랐습니다.”

그런 한편 동창회는 모교의 현재 상황을 동문들에게 알려서 동문들이 모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자문하며 기금을 돕도록 하는 등 동창회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총장은 기대를 건다.

이 총장은 이번 기회에 평의원 회의에 참석해서 미주 각지의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또한 모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한데 대해 “모교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주 동문 두뇌 자원들이 파악되는 대로 모교에 알려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주필 이원모(동, 57)



2009년 평의원회에서 시카고 동문들과 기념 촬영을 한 이장무 총장과 임광수 총동창회장 (앞줄 좌측 3, 4 번째)

서울대 최고 경영자 배출 세계 5위에

동경대, 하버드대, 스탠포드 등에 이어 등재

프랑스 '에콜 데 민'이 매년 실시하는 최고 경영자 배출능력에 따른 대학평가에서 서울 대학교가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에콜 데 민'은 매년 포춘지(Fortune)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 CEO의 출신대학을 조사해 세계적인 CEO를 배출한 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올 해 평가에서는 일본 동경대학이 18명의 CEO를 배출해 작년에 이어 세계 1위를 지켰고, 하버드대와 스탠포드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이윤우 동문(전자공학과 69년 졸업, 삼성전자), 이구택 동문(세라믹공학과 69년 졸업, 포스코), 민계식/최길선 동문(조선공학과 65/69년 졸업, 현대중공업) 등 9명의 글로벌 CEO를 배출해 세계 5위에 올랐다.

국내 대학 중에는 성균관대(84위), 연세대, 한양대(89위) 등이 순위에 올랐다. 2008년에 서울대는 '에콜 데 민(그랑제콜)'이 실시한 세계 최고 경영자 배출 능력 평가에서 16위에 올랐었다.

< 서울대 홍보부 >

서울대 병원 존엄사 허용 확대

서울대 병원이 말기 암 환자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뇌사상태 환자 등도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 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은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서울대 병원이 두 번째다.

서울대 병원의 조처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의료계 전체 가이드라인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병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 권고안'이 의료 윤리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6월 7일 밝혔다. 한편 서울대 병원 윤리위원회는 의사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폭도 확대했다.

서울대 병원은 질환의 종류 및 진척 정도와 환자의 의사 결정능력 등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환자의 사전 진료 지시서 근거로 의료 윤리위원회 심의 없이 연명치료 중단

수 있는 절차를 네 가지로 나눴다. 암, 만성질환의 말기, 에이즈, 뇌사상태 환자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담은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서에 근거하여 의사의 판단으로 진료 현장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또 위와 같은 질환의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대리인이 사전 의료 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의 특수 연명치료에 의존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 병원은 5월19일부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전 의료지시서를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11명의 암 말기 환자가 사전 의료지시서를 작성해 이중 7명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사망했다.

					
이윤우 동문 (전자공학과 69졸) 삼성전자	박용호 동문 (경영학과 71졸) SK	이구택 동문 (세라믹공학과 69졸) 포스코	이수창 동문 (수학과 71졸) 삼성생명	서경석 동문 (법학과 71졸) GS 홀딩스	박병원 동문 (법학과 75졸) 우리금융지주

			글로벌 기업 CEO 배출 서울대 세계 5위	
민계식 동문 (조선공학과 65졸)	최길선 동문 (조선공학과 69졸)		1위 동경대	일본
			2위 하버드대	미국
			3위 스탠포드대	미국
			4위 와세다대	일본
			5위 서울대	한국

서울대 동창회 홈 커밍 데이

서울대 가족을 초대합니다.

동문들께서 기다리던<서울대 가족 홈커밍 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서울대인의 가장 큰 가족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 대회>는 올해로 30회를 맞으면서<서울대 가족 홈커밍 데이>라는 더 큰 의미로 확대 개편하여 모교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보다 다채롭고 알찬 내용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9일 하루, 6천여 서울대 가족이 번잡한 도심에서 떠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면서 추억이 어린 모교의 곳곳을 둘러보며 친목 행사에 모교 캠퍼스가 동문들의 함성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특히 당일은 동문과 가족들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규장각을 개방합니다.

○ 일시 및 집결 장소: 2008년 10월 19일(일요일) 0900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행사내용: 교내 관광(0900~1200) 및 친목행사(1200~1600)

○ 기타 안내 사항 - 서울대 가족(동문과 동문가족) 누구나 참석.

- 중식, 식사와 음료 제공, 각종 이벤트와 행사

- 경품(임광수 회장 자동차 협찬) 제공

○ 기타 문의 사항

※ 우천으로 야외행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내 행사로 속행합니다

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02-702-223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임광수

특집 기고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과학적 설명 불허하는 북한의 실상



고병철 (55, 법대)
일리노이 대 명예교수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그 다음 달에는 제2차 핵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위협을 주었다.

이로써 한국, 일본, 미국 뿐 아니라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합세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탄하고 제재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채택 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전 세계에 도전한 셈이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외장성명과 결의안 채택에 강도높게 대항하였다.

유엔 안보리에 사과와 모든 결정과 결의의 철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2003년 이래 비정기적으로 열려 온 6자회담에 불참의사를 통보했다.

그리고 그 회담의 합의에 따라 진행중이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의 백지화를 선언하며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미 정부의 기술요원들을 추방하고 폐연료봉의 재처리 및 모든 핵시설의 원상복구와 재가동을 선포하였다.

북한은 미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 4일 단거리 미사일 7기를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외장성명과 오바마 행정부의 규탄과 경고를 유도하였다.

‘손실과이득의 분석’으로 북한의 행태 설명 안돼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외부에서 흔히 쓰는 ‘손실과 이득의 분석(Cost-benefit analysis)’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엄격히 말하면 북한의 행동은 사회과학적인 ‘설명(scientific explanation)’을 불허한다.

필자가 재미 한국계 동료학자와 함께 북한을 처음 방문한 1981년에 비하면 오늘의 북한은 외부와 접촉이 놀라울 만큼 증가해서 거의 개방된 인상까지 주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 고립된 국가로 남아 있다.

북한의 정치역학(political dynamics)과 정책결정은 철저하게 베일(veil)에 가려져 있어 외부 관측자들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극소수의 엘리트들 제외하고는 알지 못한다.

다만 대외정책은 그 성격상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져서 그 윤곽을 가늠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없다.

북한의 전략적 목표

북한의 언동,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성명과 가시적 행동을 오래 동안 관측해 온 외부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주관적인 이해(understanding)와 ‘질제된 추측(disciplined speculation)’에 불과하다.

설명이 아닌 ‘이해’도 ‘개념적인 틀’을 활용하면 신빙성 또는 설득력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다.

필자는 극히 초보적인 개념적 틀로 북한의 전략적 목표를 정통성(legitimacy), 안전보장(security), 경제개발(development)로 설정하고

에서 적대적인 국가와도 대화와 접촉이 필요함을 강조 해서 북한 집권층의 기대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는 대공황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두개의 전쟁 등에 밀려 북한 문제는 거의 무시 당하고 있었다.

사실은 북한정책 담당 최고 책임자 격인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을 최상위에 올려 놓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에게는 세계의 유일한 초강국(super power) 미국과 대화와 관계 정상화가 정통성 추구에 큰 플러스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억지력’의 보장

미사일 발사는 2차 핵실험과 함께 북한의 ‘억지력 보장’, 다시 말하면 안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적 측면은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중요한 외화 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해 온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로켓 기술 발전의 전시는 중동과

되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통성과 국내 정치의 관련은 북한의 ‘강성대국’ 추구하고 후계 기반 구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1012년 강성대국에 진입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군사적 억지력의 강화는 강성대국의 큰 구성요소인 ‘강력한 국가’를 향한 ‘약진’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권력 세습 성공 불투명

후계자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 9월 뇌졸중(stroke)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과 그가 3남 정운(26)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설이 신빙성이 있다면 군부의 지지를 강화하고 세습적 권력이양의 정당성을 보장하려는 계산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두번 제의 세습적 권력승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별 문제다. 김일성-김정일 승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20여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김정일의 정통성 구축 및 군부 장악이 완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이 실제로 격상될 수 있는 지는 회의적이다.

핵보유 본색 드러내

이번에 일어난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북한이 과연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관측자들의 입장을 보장하였고 북한의 비성실성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본인들을 납치했다는 주장을 단호하게 부인해 오다가 2002년 9월 고이즈미(小泉)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전격적으로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적이 있다.

그 후 북한이 인정한 5인의 피랍 일본인과 그들의 가족은 모두 일본으로 송환되었으나 나머지 피랍자들의 행방에 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아 북일 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6년 이상 강력하게 그 존재를 부인해 오던 고농축 우라늄(highly-enriched uranium)을 이용한 제 2의 핵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의 진행을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중국과 협조 필요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의 대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북한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 중국과 전통적 우방 러시아가 일관성있게 북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이다.

그 뿐 아니라 양국은 6자회담의 계가 새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을 다시 6자회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도 인정하고 협조하고 있다.

제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1874는 제재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 북한 선박의 해상 규제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금융제재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압박과 유인을 병용할 의지를 표명했으며 북한과 양자대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협조를 증가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낙관을 해도 무리가 아닐지 모른다.



북한이 정권 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매스 게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행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선의의 무시에 대한 경종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 실험은 상기한 세 목표와 모두 연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4월 5일 로켓 발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에 대한 경종(wake-up call)이었다. 오바마는 선거중 ‘변화’를 간판으로 내 걸고 대외 정책

아시아의 북한 고객들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 2개월 동안 북한이 행한 18기의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의 성능 개량, 특히 정확도의 증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비용이 총 7억~8억 달러가량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면 북한이 계속되는 식량난 속에서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군사적 도발행위를 한 것이니 과연 경제 발전에 도움이

그러나 같은 조건이 이번에도 충족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과, 그가 실제로 부상한 것은 그가 김정일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은 표면에서 장성택과 국방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포스트 김정일의 북한을 통치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얼마 동안 계속될 수 있을지,

특집 기고

구 공산권의 자본주의 도입에 북한이 편승 못한 원인 “북한은 개혁역행·교역편중·군사경제”



백 순 (58, 법대 입학)
미 노동성 선임 경제학자

최근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북한경제는 작년에 비해 3.7%성장했다고 한다. 이는 요즘과 같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기록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규모나 개인당 소득 등 실질경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북한 경제는 저개발 경제 중에도 하위에 속하고 있으며, 빈곤한 경제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황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경제에 대한 경제통계가 희소하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많지만, 한국 통일부에 의하면 2008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247억 달러에 달하고 개인당 국민소득이 1,152달러 밖에 못 이르러 아프리카의 Zimbabwe나 Sudan, 그리고 Uzbekistan이나 Bangladesh의 경제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도다.

경제 개혁 역사의 흐름

20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경제체제 모델로 등장하여 한 때 세계의 3분의 1이상을 지배했던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1989년 구 소련의 멸망과 함께 실패한 경제모델로 공인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도 많은 결점을 안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변형과 성장을 마련해주는 경제제도 가운데 인간이 고안해 낸 가장 좋은 제도인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경제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구 소련이 해체된 이후 많은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 구 공산주의 경제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 개혁을 통하여 놀라운 경제발전을 해 온 것은 지난 20여년 그들 경제의 고도성장 실적이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북한 경제는 아직까지 국내 총생산이나 개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으로 '하위 저개발경제'다. World Food Program의 보고에 의하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영양실조에 놓여 있다는 '빈곤경제'로 전락해버린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는 북한경제가 간직하고 있는

특성에 관해 거시 경제학(Macroeconomics)의 관점에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북한경제는 거시경제학적인 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역행하는 경제며, 국제경제 교역에 있어서 한 곳에 편중·의존하고 있는 경제다. 국민경제 내의 규모면이나 그 활용면에서 군대력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바로 그러한 특성이 북한경제를 지금의 하위 저개발경제, 그리고 빈곤한 경제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특성을 차례로

혁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개인의 경제 행위를 허락해 주는 제도적인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하여 개인에게 극히 제한적이지만 재산 소유권(덧붙여서 식료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자유)을 인정해 주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02년 7월에는 양곡 등 주요 생활 필수품에 대한 정부 통제가격을 풀고 시장을 통한 가격설정을 인정해 주는 대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으로 인하여 2002-2005년 경에는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고도의 인플레이션을

블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북한경제의 개혁정책이 동유럽 국가들, 중국, 베트남의 그것과 같은 경제발전을 왜 가져오지 못하였는가?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여러가지 경제학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해답은 '세계 일등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체제 존속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경제 외적 한계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강성대국'이라는 북한의 정치 모토가 이를 말해 준다.

지난 몇년 동안 북한 경제정책의 여러가지 변화가 개혁 역행을 증명

정부의 경제정책 변경이 개혁에 역행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교역 편중 경제

둘째 북한 경제의 특성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놀라운 정도로 해외 교역이 늘어났지만 매우 편중되어 있고 오히려 한 쪽에 의존되어 있는 경제라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해외교역 실태를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구소련이 멸망한 1990년초 이후 1997-1998년까지 주로 거래되었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 교역이 60%이상이나 대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북한의 대외교역이 17억달러의 수준에서 2007년 48억달러로 거의 3배 정도 폭증하였다.

이렇게 폭증한 북한 경제의 대외 교역 내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경제의 대외교역이 주로 중국 및 한국과 교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1998년 각각 4억 달러 규모 밖에 되지 않았던 중국이나 한국과의 교역이 2007년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22억 달러로, 한국과의 교역이 20억 달러로, 각각 5.5배와 5.0배로 급성장하였다. 이 두 국가와의 교역이 북한의 전교역 48억달러 규모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북한 경제의 대외교역이 주로 중국과 한국에 편중내지 의존되어 있다는 실정을 설명해 준다.

(2) 북한 경제의 대외교역 편중이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중국편중 내지 중국 의존으로 강하게 기울고 있는 현상이다. 2008년 중국과의 교역이 30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에 비해 무려 36.4%나 크게 증가한 반면, 2008년 한국과의 교역은 16억 달러로 크게 줄어 20%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강경방향으로 전향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북한 경제가 교역 면에서 주로 중국 경제에 편중·의존하고 있는 추세는 국제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중국이 미국이나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강력한 스테이크 홀더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 일본, 러시아 이상으로 무시 못할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다.

###

세계 일등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모토와 경제정책 변화가 개혁역행 대외교역은 중국 편중 의존과 남한의 강경책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



평양시가지 출근길 교통 수단과 시민들의 옷 차림새가 북한 경제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들여다 보기로 한다.

북한 경제는 개혁 역행경제

첫째 특성은 북한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역행하고 있는 경제라는 것이다.

1989년 구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중국, 베트남 등 구 공산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받아들이는 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북한도 경제개

개혁했지만 장마당 같은 시장이 북한 전국적으로 수천 곳이 생성되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장거래가 성행하기 시작하였고, 공공 배급제도도 거의 폐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외에도 별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라진-선봉 특구 설치와 신의주 개방, 그리고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설치의 북한경제의 개혁 의지

하고 있다. 2005년 10월 공공 배급제도를 재개라든지, 2007-2008년 시장 거래자, 특히 여자 거래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10일에 한번 장마당을 연다는 시장활동의 제한 강화라든지, 2008년에 신의주와 함경북도 국경에 반사회주의 양심 조사단을 파견하여 외국 교역활동을 철저히 내사한 조치라든지, 금년 5월 개성공단에 대한 임대-세금-임금 관련계약을 파기한 것 등은 북한

북한 관계 기사 전제



양영태 (치대, 70년 졸)
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김현희 만큼 파란의 주인공도 드물 듯 싶다. 그녀만큼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살아야 할 주인공도 없을 듯 싶다. 따라서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은 늘 뉴스의 초점이 되어 왔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라는, 역사의 질곡은 끝까지 그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한 때 김현희의 치과 주치의들 담당했던 양영태 박사의 회고담을 싣는다. (아래 내용은 양영태 박사가 발행하는 '인터넷 타임스'에서 허가를 받아 전제한 것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본인은 당시 안기부의 요청으로 김현희의 치과 진료를 김대중이 집권하기 전까지 담당한 바가 있다. 당시 안기부 고(高)모 수사관을 비롯한 2~3명의 경호원이 여의도에 있는 본인의 병원에서 함께 진료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었고, 그래서 김현희 치과 진료는 철저한 보안 속에 몇 년간 이루어졌었다.

김현희를 처음 진료하는 날, 저렇게 아름답고 고운 처녀가 KAL기를 폭파하다니 참으로 '공산주의 이념'은 무섭구나 하는 전율-온통 그 느낌뿐이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왜 하필이면 '여의도'에 있는 나의 치과를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본인이 과거 대통령 주치의로서, '보안성'이 강한 전력을 고려하여 김현희에게 대한민국 실상을 교육시켜 주기 위해 외부 진료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나중에 들었던 적이 있다.

김현희를 처음 본 순간 새하얀 피부에 그러나 역세고 강인한 북한 말투의 끝자락에서 그가 '무서운 특수 교육'을 받았음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김현희가,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와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책을 저술할 때마다 본인에게 손수 친필로 새해맞이 카드나 책 첫 장에 '감사의 글을 써 보냈었던 인간미 있는 여성이었다'.

가끔 김현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좌파 정권 하에서 참으로 고초를 많이 겪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서는 저 무시무시한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압박 속에서도 김현희를 잘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기도어린 바람을 자주 하곤 했었다.

진료가 끝나면 한 20-30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자주 가벼운 담소를

수사관과 김현희와 함께 하곤 했는데, (물론 기념사진도 가끔은 찍었다.)

어느 날 진료가 끝난 후, 나는 김현희에게 불쑥 이런 질문을 던진 기억이 새롭다.

"김현희씨! 맨몸으로 남자 몇 명 정도 헤치울 수 있소?" 하고 웃으며 묻자, 김현희는 생글생글 웃으며 즉답하기를 "두 명 정도는 자신이 있어요"라고 하는 그의 다부진 모습에서, 진료할 때마다 그를 보면서 느꼈던 강인한 그의 체형이 슬한 무술과 이념 훈련으로 단련되

"맨몸으로 남자를 몇 명 정도나 헤치울 수 있소?"
"두 명 정도는 자신이 있어요!"



어 있었음을 새삼 느끼곤 했었다.

김현희를 안기부에서 민간 병원인 여의도까지 보낸 것은 다른 어떤 대한민국의 바깥 세상에 적응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었음은 물론이다.

진료가 끝난 어떤 날은 경호원이

'오늘은 신세계 백화점을 구경시켰다'는 전언을 듣고, '신세계 백화점에 가보니 어땠었나'고 내가 묻자 '굉장히 복잡하고 물건들이 많아 무척 재미있었어요'라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김현희 소식은 갑자기 감감해졌고 다만 당시 그를 수행했던 어떤 수사관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행복하고 무사하게 잘 살기를 간곡히 기원해 본 적도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KAL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씨가 '조작'된 사람이라는 일부 매스컴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설세없이 나돌기 시작했다.

과거사 위원회가 조사한다는 등등...

친북 좌파들이 김현희를 놓고 압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구 정권의 압력으로 강제 자백을 했었다고 실토하는 김현희

나는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틈만나면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이 결코 조작이 아니라 무서운 진실의 사실이라는 설명을 빼놓지 않고 하고 열변을 토하며 핏발을 세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친북 좌파정권은 KAL폭파 주범인 김현희를 가짜로 둔갑시켜,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김정일에게 충성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땅에 붉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했던 것이 친북좌파들의 목표이었음은 당연하다.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친북좌파의 실상을 뒤늦게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완전히 왜곡한 교과서를,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의 순진한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시켰던 뚱뚱 전교조와 친북좌파들이 그 무슨 못된 짓인들 못했겠는가?

'나는 가짜 KAL기 폭파범이에요, 다 가짜예요'라는 김현희의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그 얼마나 김현희를 죽음에 이르도록 괴롭혔을까 생각해보니 새삼 분노의 해일이 밀려온다.

지금까지 그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잘 참아온 '김현희' 씨와 그의 부군인 당시 그 경호원의 행적을 새삼스럽게 빌어보는 이 마음 속에는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를 선택 했었기

에 가능한 자유의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니 그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인가?

"무전기는 어떻게 만드나"고 내가 물어보자, 김현희는 "조그만 트랜지스터 하나만 있으면 5분이면 무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듣고 한참 놀라워한 적이 새삼스럽게 귓전을 두드린다.

그 역센 북한 사투리와 그의 연약한 듯 보이면서 그러나 그의 건장한 체구에서, 그가 오랜 세월동안 단련된 북한 특수 요원이었음을 처음 김현희를 보는 순간에 느낄 수 있었는데도, 좌파정권은 10년 동안이나 김현희로부터 가짜 자백을 받아내어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에 충성하려 했던 반역적인 친북좌파들이 몹쓸 행태를 계속했다.

어떻게 김현희를 압박한 친북 좌파들을 처벌하지 않고서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행한 범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우리의 역사'를 180도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송두리째 북한 김정일 정권의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악랄한 점이라고 확신한다.

차제에 역사 왜곡을 담당했던 친북 좌파들의 집대성인 인권 위원회와 과거사 위원회에 몸담았던 악질 친북좌파의 관련된 자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공개조사를 실시하여 반역 행위를 백일하에 노출시켜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권이혁 (의대, 47년 졸업)
전 복지부장관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갖가지 욕구를 가지며,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욕구가 충족된 상태 또는 그때 생기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어떠한 욕구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가에 따라 행복의 내용도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다.

감성적 욕구의 만족에서만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쾌락주의자'로 불린다.

이 경우의 행복은 감성적 쾌락을 뜻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BC 342~BC 270년)는 이 종류의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까닭에 쾌락주의자를 '에피쿠리언(Epicure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에피쿠로스 자신은 반대로 참다운 행복은 어떤 욕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있다고 보았다.

동양에서 회자되는 '깨달음의 경지'나 '무(無)의 경지'가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감성적 욕구의 만족이 아니고, 정신적 안정을 구하는 욕구의 만족이다.

스토아학과 사람들도 이성적 지식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고, 극기금욕적(克己禁慾的)으로 사는데서 행복을 발견했다고 한다. 스토아학파는 BC 3세기부터 로마제정 말기에 이르는 고대후기를 대표하는 고대 그리스철학의 유파다.

제논(BC 490년~BC 430년)이 창시한 그리스 철학의 한파인데, 윤리를 중심 과제로 하고 준엄한 도덕주의와 엄격한 의무의 준수를 주장했다.

스토아학파들은 스토아(stoic)이라고 하는데, 극기와 또는 금욕주의자라는 뜻이다. 제논이 아테네 아고라의 stoa(주랑, 柱廊, 여러 개 기둥만 나란히 서 있고 벽이 없는 복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스토아 파(주랑의 사람들)'라고 불렀다.

행복지수란?

행복지수란행복지수(HPI)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코언이 만들어 2002년 발표한 행복공식이다.

이들은 18년 동안 1천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80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상황을 고르게 하는 실험을 했

다.

그 결과 "행복은 인생관·적응력·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가르키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기대·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요소 중에서도 생존조건인 E가 개인적 특성인 P보다 5배 더 중요하고, 고차원 상태인 H는 P보다 3배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해 행복지수를 $P+(5 \times E)+3 \times H$ 로 공식화했다.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은 0~10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①나는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P지수). ②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며 스스로 잘 통제한다(P지수). ③나는 건강·돈·안전·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E지수). ④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자신이 세운 기대치를 달

“빈곤하다고 모든 사람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인생은 불공평하게 보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공평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성하고 있다(H지수).

①과 ②를 더한 점수에 ③점수의 5배, ④점수의 3배를 더하면 행복지수가 산출되는데, 만점인 100점에 근접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을 것 스홍미와 취미를 추구할 것 스밀집한 대인관계를 맺을 것 스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것 스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 것 스운동하고 휴식할 것 스행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질 것 등 7가지에 힘쓰도록 강조하고 있다.

불행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생에는 행복과 불행이 반반 정도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살펴보면 인생이란 그렇게 공평한 것이 아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행이 연속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에이즈 어린이를 보고, 어린이들의 공통점이 웃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작가가 있다.

어린이들은 웃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좋은 일이 없다면서 상을 쟁그리며 우는 어린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힘이 없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어머니 입장에서든 현세(現世)는 악몽일 수밖에 없다. 남편에게서 에이즈를 감염 받고 이제는 하나뿐인 자식을 잃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부인도 얼마 후에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불행의 예지만 우리 주변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는 부인도 있다.

서울 영세민 조사

필자는 1966년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서울시, USOM(미국 원조기관) 등의 지원으로 1966년 1·8월(하계조사)과 1967년 1·2월(동계조사) 서울시내 영세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일이 있다.

이를 1967년 7월 '도시영세민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출간해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연구에 박형종·김태룡·강길원 선생 등이 동참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생 11명과 이화여대 사회학과 학생 3명 등 14명이 조사원으로 일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귀중하고 희귀한 연구였기에 결과가 '동아일보'에 연재되기도 했다.

서울시내의 하천변 영세지역·평지 영세지역·구릉(丘陵) 영세지역·한강변 영세지역에 소재했던 1만3159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과 가구는 서울시·구청·동사무소 직원의 판단에 따라 불량주택에서 살고, 교육·문화·생활수준이 낮은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이들의 생활 상태는 상상 이하였는데, 그 이후 이들의 상황이 어찌 변화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당시는 행복지수 같은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일들을 그대로 넘겨 버린 것이 후회스럽다.

빈곤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행복 문제를 등한시 했던 사실이 몹시 아쉬워진다.

1992년 6월에 UNCED(UN환경개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필자는 환경청장관이었으며, 사절단장인 정원식 총리를 비롯하여 15명이 참석했다.

사고방식의 차이

Copacabana 해변가에 있던 숙소로부터 회의장까지는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였다.

하루는 리우 데 자네이루 시내 관광 중 안내 가이드가 "저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빈민굴인데 약 1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경찰관은 물론이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그러더니 "저기서 사는 주민들은 전기와 물을 시에서 공짜로 공급받고 있어서 자신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혔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한 사고방식도 성립할 있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2000년 5월 집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얼마 안 되어서 '의학신문' 창간자인 고 박선규(1925~2005) 회장이 한 말이 떠오른다.

"권 박사(필자) 내외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건강하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 몇년 후 박 회장이 전립선암으

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꼭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론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역시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게 마련이고, 자신을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필자는 행복이란 불행을 경험하는데서 나온다는 생각을 한다.

이 세상에 불행이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인데, 이 불행에서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불행에서 벗어나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속하고 있는 위치에 만족하고, 불행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 비참한 현실 등은 수없이 많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처세는 "내 자신은 그렇지 않으니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끝으로 결론 삼아 바누아투 공화국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바누아투는 호주 시드니에서 동북쪽으로 약 2500km 쯤 떨어진 남태평양 해역에 산재한 8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면적 약 1만 2190km, 전라남도보다 약간 큼)며, 약 20만 명이 사는 미니 군도(群島)국가다. 주민의 80%가 기독교신자다. 취업률은 7%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약 2900달러로 전 세계 233개국 중 207위다.

그런데 바누아투는 2006년 영국신경제재단(NEF)에서 실시한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서 178개국 중 1위였다. 한국은 102위였다.

2009년 5월 18일 강원 영월군에서 열린 제3회 세계국립대학총장문화예술교육(UCAWE)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내한한 조지 보루구 관광청장의 '바누아투 국민의 행복지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재미있다.

"물질이 풍부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직접 와서 느끼면 삶을 조금 알게 될 것"이라며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단순소박하고, 항상 서로 나누고 존경하는데 익숙한 생활방식 덕분"이라고도 말했다.

진짜 행복이란?

그러나 필자의 마음속에는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언제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 궁궐에 살면

권이혁 박사의 행복지수 산출공식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을 0~10점까지 부여한다.

1. 나는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P지수). -점
 2.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며 스스로 잘 통제한다(P지수) -점
 3. 나는 건강·돈·안전·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E지수) -점
 4.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자신이 세운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H지수) -점
- 계산(가) 1과 2의 점수를 더한다 소계 -점
계산(나) 3점수의 5배 -점
계산(다) 4점수의 3배 -점
계산(라). 이상 계산 (가)(나)(다)를 합친다 -점
*(라)의 종합 점수가 당신의 행복 점수며 만점인 100점에 근접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7월 Vol.183

동문의 자랑스런 후예들 1

다트머스대 김용 총장

“젊은이들은 그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동창회보는 '동문의 자랑스런 후예들'이라는 타이틀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 기획은 말 그대로 우리 동문의 후세로 미주 이민족 사회에서 큰 귀감이 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질 것입니다.

그 첫번째로 고 김낙희 동문의 장남 김용 다트머스대 신임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게재합니다.

동문 제위들께서는 이같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추천은 물론 자세한 정보 제공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1959년 서울에서 김낙희 동문과 부인 전옥숙씨 사이에서 태어난 김 총장은 5살 때 부모를 따라 아이오와 주로 이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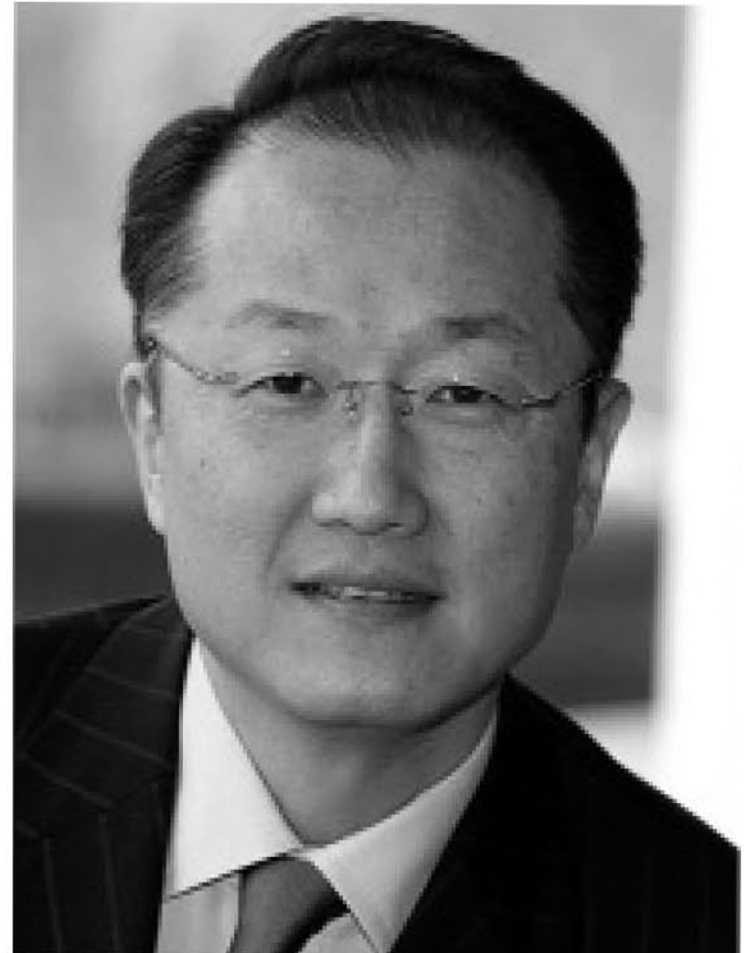
이후 Mustatin고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82년 아이비 리그 중 한 곳인 브라운 대학을 나왔다. 이어 하버드대 의대에 입학해 1991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3년에는 인류학 박사학위를 따냈다.

그는 브라운 대학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개발도상국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퇴치와 빈민국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하버드대 의대 재학 시절 동료 폴 파머 박사와 함께 의료 자선단체인 '건강의 동반

한 세계 각국 빈민가 의료 사각지대의 환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들의 구제활동에 크게 감동한 건설업자가 전 재산 3천만 달러를 기부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에 빈민국의약품 내성이 강한 결핵환자 완치율을 80% 이상으로 높였으며 이 의약품의 가격을 대폭 낮추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전 세계 40여개국이 그의 프로그램을 따르게 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자 모교 하버드대 의대가 그를 교수로 채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이후 하버드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사회의학과 학과장에 임명했고 브리검 여성병원 사회의학부장, 공공보건대학원



“앞으로 제가 할 일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어 잘 가르쳐서 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고 김낙희(치의대 51년 졸) 동문의 장남 김용(50· Jim Yong Kim)씨가 마침내 지난 7월 1일부터 다트머스 대학 총장으로서의 집무를 시작했다.

다트머스 대학은 김 총장이 1일 교직원들과 조찬을 시작으로 학생들과 환영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공식 취임식은 9월 21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3월 각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김 총장은 '아이비 리그'의 명문으로 240년 역사를 가진 다트머스 대학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총장에 내정된 바다.

자(PIH· Partners In Health)'를 만들어 활동했다.

이 단체는 미국 뿐 아니라 페루· 러시아· 말라위 등을 비롯

보건· 인권센터장까지 맡았다. 하버드대가 이처럼 소수민족 출신에게 여러 중책을 한꺼번에 맡긴 것도 처음 있는 일로 전해

지고 있다.

이후 그는 고 이종욱 동문이 WHO사무총장에 제직 중이던 지난 2004년 WHO의 에이즈 국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당시 30만명 수준이던 에이즈 치료율을 5배나 되는 150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실적을 올렸다.

이같은 활동 등으로 2003년 맥아더 재단 '펠로우 상'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뉴스위크가 선정한 '2004년의 13인'에 올랐으며 2005년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의해 '미국의 최고 지도자 25명'에 뽑히기도 했다. 더구나 2006년에는 '타임'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에 선정된 바다.

그는 최근까지도 하버드대가 주관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 딜리버리(Global Health Delivery)' 프로그램을 이끌어왔다. 이 프로그램 역시 빈민층을 위한 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확산시켜보자는 계획 중 하나다.

다트머스대 총장 선임위원회는 400여 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6월부터 선정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 심사결과 김 교수가 선정되자 에드 헬드먼 재단 이사장은 “김 총장이 다트머스의 사명 중 핵심인 배움과 혁신, 봉사에 가장 이상적 인물”이라고 평한 바다.

“김 신임 총장은 일생을 통해 젊은이들에 대해 강의실 안에서든 물론 밖에서도 가르치고 영감을 고취시키는 데 헌신해 왔다”며 치하한 데서도 그의 인물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헬드먼 이사장은 신임 총장에게 행사 연설에서도 자신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난제에 도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부친 고 김낙희 동문은 1951년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1964년 아이오와 대학에서 공부한 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치과외사로 일했다.

김 동문은 의대에 진학한 김용이 '전공을 철학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자 '레지던트를 마치고 의사가 되면 허락해주겠다'고 한 일화가 있다.

또한 모친 전옥숙 박사는 경기 여고 수석졸업생으로 역시 아이오와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총장의 동생 '훈'씨 역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김 총장은 “아무리 큰 목표를 정하는 것이 과다하고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맞서 싸울 수 없는 문제는 이 세상에 없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어 잘 가르쳐 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며 후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편집실>



←김용 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이 7월1일 공식 총장 집무에 들어가기 전 조찬을 마치고 직원들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모교 소식



롯데 국제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호근 전 대외협력 본부장, 이종섭 자연대 학장, 김하석 대학원장, 김신복 부총장, 임광수 총동창회장, 이장무 총장, 노신영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

서울대 롯데 국제교육관 개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 추진사무실
외국인 교수 연구실, 외국대학 분소 등 입주

서울대 롯데 국제교육관 개관식이 6월 23일 열렸다.

롯데 국제교육관(오른쪽 하단 사진)은 롯데 장학재단이 재단 설립 2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70억원을 출연해 건립되었다.

지난 해 6월 착공해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개관식에는 이장무 총장, 김신복 부총장, 임광수 총동창회장, 노신영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롯데 국제교육관은 지상 6층, 연면적 5,280㎡ 규모이며,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추진사업 사무실과 외국인 교수 연구실, 외국대학 분소, 아시아

연구소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장무 총장은 "최근 80여 명의 외국인 전임교수 채용을 승인했으며, 추가로 70여 명의 외국인 겸임교수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인트라 부족으로 고심이 많았다"면서 롯데 국제교육관 개관에 많은 기대를 표했다.

서울대는 롯데 국제교육관이 주변의 CJ인터내셔널센터, 언어교육원과 더불어

이 서울대 캠퍼스 내 '글로벌존'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홍보실>



Glo-harmony 장학생들(왼쪽부터): Wang Ke (국어교과2, 중국), Lee Shan Hao (화학실공과대학2, 말레이시아), Puri Mukta (전기공학부2, 인도네시아), Purendash Buyandelger (경제학부2, 몽고), Simon (전기공학부2, 케냐), Miriam Chege (경제학부 2, 케냐)

글로벌하모니 장학생 한국문화 체험여행

글로벌-하모니(Glo-harmony) 프로그램은 글로벌 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 도입한 외국인 학생 대상 장학제도다.

글로벌-하모니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8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 면제에, 생활비 및 고국행 비행기 티켓 등 파격적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마련된 장학제도로 경제가 어려운 OECD/DAC 수혜국 출신 중 숨은 인재를 선발한다.

이렇게 해서 "중고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게 기적"이었었고 "책을 읽는다고 늘 야단을 맞았다"

는 키쿠유 부족 출신의 허람 세즈가 08학번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몽골인 푸레프다시 부안델거는 한국 봉사단체를 통해 이 장학제도에 지원했다. "한국 기업이 몽골에 진출을 돕는 전문인력이 돼 몽골경제에 기반을 만들고 싶다"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으로 두번째 장학생이 됐다.

서울대 대외협력본부는 글로벌-하모니 장학생들을 모두 모아 6월 20일 김포, 강화 일대로 '한국문화 체험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서울대 홍보실>

분당 서울대 병원 전립선 적출술 1천례

분당 서울대 병원 비뇨기과 이상은 교수팀이 최근 63개월 사이에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1천례를 달성했다.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은 국소 전립선 암의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따라서 이 교수팀의 기록은 단기간 단일 병원에서 이룬 유례없는 성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암은 성인 남성 4~5명 중 한 명꼴로 발병하는 아주 흔한 질병으로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 수술 1천례 당상을 기념해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개복수술을 비롯해 복강경, 로봇 수술 등 최신 진료와 치료기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로봇 수술은 수술하는 도중 출혈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로봇 수술은 수술 후 발기부전 및 요실금 등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수술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적극 권장되고 있다.

국제 하계학교 80%가 외국 대학생

11개국 140명에 해외 교수 15명 강의

서울대 대외협력본부는 지난 7월부터 2009년 '국제 하계학교(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국제 하계학교는 서울대 학생과 외국대학 재학생들이 모여 국내외 석학들의 강의를 영어로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대에서 듣는 아이비리그 강좌'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에는 해외 대학 초빙교수 15명과 서울대 교수 10명이 14개의 강의를 맡고, 14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

수강하는 학생들 중 80% 이상이 외국대학 재학생으로, 전년도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늘었다.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에서는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서울대 국제 하계학교의 대한 해외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대는 중국, 한국 및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새롭게 초빙해 강사진을 구성했다.

스탠포드 대학 중국학과에서 중국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반왕 교수(Ban Wang) 교수가 '현대 중국의 역사와 문화' 강의를 시작했고, 서울대 중국연구소 소장인 정재호 교수가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 수업을 맡아 열강하고 있다.

중국 사회의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워싱턴대 정치학과 교수인 와이팅(Susan Whiting) 교수가 후반기 같은 강의의 후반부를 맡는다.

가장 많은 학생이 신청한 강의는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 수업으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조지아 대학의 이향순 교수가 강의하는 '한국 미술과 대중문화'는 외국인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전년도에 인기 교수로 주목을 받았던 다트머스 대학의 데이비드 강(David Kang)

교수는 다시 '동아시아 안보' 강의를 시작했다.

방학을 이용해 먼 곳에서 찾아온 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한국' 그 자체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닉 와이버(Nick Wyver) 학생은 요즘 영국 언론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한국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이곳에 왔다고 한다.

그가 선택한 수업은 캐나다 UBC에서 한국의 일본제국주의사를 연구하고 있는 형구 린 교수가 강의하는 '현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수업. 수업시간에 영화 JSA를 보고 토론한 것이 무척 흥미로웠으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DMZ에 직접 가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의 제안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교수-학생 대항 풋볼 게임에 매주 참여하는 것도 그의 즐거운 한국 일과다.

프랑스의 그랑제콜 예술대학인 ENSA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앨리스 에글러(Alice Egler) 학생은 프랑스 수업시간에 서울이 5대 디자인 도시 중 하나라고 배우고 서울의 디자인을 직접 보고 싶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다.

최대한 한국을 알고 가는 것이 목표인 그녀는 한국어 기초 수업과 '현대 한국의 미술과 문화' 수업, 또 새로 개설된 미술 실기 수업인 '한국의 미술과 공예', 세 강의를 함께 수강하고 있다.

직접 한국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흥미롭고, 틈 날 때마다 서울에서 실제로 모던한 갤러리와 건축물들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국제하계강좌는 8월 7일까지 5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대 홍보실>



Hyng Gu Linn 교수가 한국 역사와 문화를 강의중이다

스포츠과학 연구소 체육영재 양성 주관

사범대학 스포츠과학 연구소(소장 나영일)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 육성재단에서 지원하는 서울지역 초·중·고생 기초종목(육상, 수영, 체조) 체육영재양성 사업 주관 단체로 최종 선정됐다.

체육영재센터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되며, 서울대 스포츠과학 연구소는 서울 서부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육상(30명), 수영(10명), 체조(10명) 분야에서 영재를 발굴해 훈련시킬 예정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발표와 평가단 현지실사를 거쳤다.

서울대는 각종 스포츠 관련 최신 시설 및 첨단 실험 기자재와 스포츠과학 관련 전 분야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고국 동문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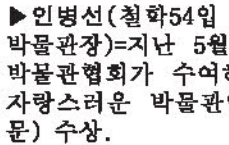
수상



▶ 임홍빈 (법학52-56 문학사상사 회장)=지난 5월 8일 대한매일신보 초대 사장을 지낸 裴說선 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배설언론상 수상.



▶ 민경갑 (회화 53-57 예술원미술분과 회장)=지난 5월 16일 한국 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로 제44회 5-16민족상(학예부문) 수상.



▶ 인병선(철학54집 질풍생활사 박물관장)=지난 5월 25일 한국 박물관협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원로부문) 수상.



▶ 최길수 (의학55-61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지난 6월 13일 유라시아 신경외과 아카데미(EANS)에서 올해 처음 신설한 골드메달 수상.



▶ 정제우 (사학57-61 前독립기념관 연구소장)=지난 4월 12일 義菴柳麟錫 선생 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10회 의암대상(학술부문) 수상.



▶ 오민수 (지구과학 60-6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지난 4월 23일 부산 BEXCO에서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로부터 제10회 김옥준상 수상.



▶ 심문섭 (조소61-65 前중앙대 교수)=지난 5월 27일 조각가 文信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8회 문신미술상 수상.



▶ 이문면 (건축65-69 세아제강 회장)=지난 6월 2일 독일 뮌헨 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8회 뮌헨 예술후원자상 수상.



▶ 강현석 (사회69-76 조선일보 주필·본보 논설위원)=지난 5월 8일 대한매일신보 초대 사장을 지낸 裴說선 생을 제1회 배설언론상 수상.



▶ 송명근 (의학70-76 건국대 교수)=지난 5월 27일 제단법인 상허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9회 상허대상(의료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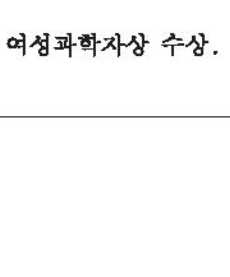
▶ 안상수 (체육교 육71-75 인천광역시 시장)=오는 9월 22일 미국의 저명한 공공정책포럼인 우드로 윌슨국제센터로부터 올해의 우드로 윌슨상(공공서비스부문) 수상.



▶ 남상우(행정73졸 충북 청주시장)=지난 5월 20일 세계 부부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 조병철 (사회73-77 세계일보 주필·본보 논설위원)=지난 5월 27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5회 한국참언론인대상(칼럼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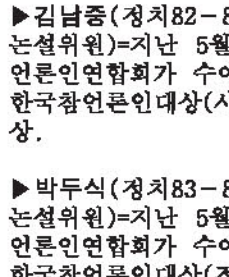


▶ 이엄숙 (식물학 74-78 포스텍 교수)=지난 5월 13일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5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

▶ 이왕돈(철학75-79 SBS 논설위원실장)=지난 5월 27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5회 한국참언론인대상(앵커부문) 수상.



▶ 이상현 (의학 78-84 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지난 5월 7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신경외과학회로부터 국제학술상 수상.



▶ 김남중(정치82-86 중앙일보 논설위원)=지난 5월 27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5회 한국참언론인대상(사회부문) 수상.



▶ 박두식(정치83-87 조선일보 논설위원)=지난 5월 27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5회 한국참언론인대상(정치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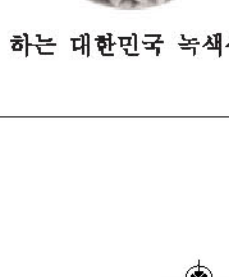
▶ 심보선 (사회 88-95 성공회대 연구교수·시인)=지난 5월 29일 이수를 금坡成명예회장을 제16회 금坡成문학상 수상.



▶ 김재철 (AMP 4기 동원그룹 회장)=지난 5월 22일 한국경영자학회가 수여하는 제15회 창업대상 수상.



▶ 강영중 (AMP 28기 대교그룹 회장)=지난 5월 27일 제단법인 상허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9회 상허대상(학술·교육부문) 수상.



▶ 이정훈(AMP 54기 서울만도체 사장)=5월19일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수훈.

대상(바이오에너지부문) 수상.

▶ 양창식(ACAD 3기 前국회의원·현정회 고문)=지난 6월 1일 육사 개교 63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육사인상 수상.



▶ 이인규(식물학55-60 모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지난 4월 30일 문화재위원회 겸 천연기념물분과·세계유산분과위원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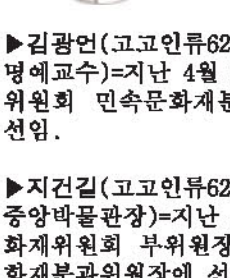
▶ 서병호(사회57-61 방송체널사 용사업자협의회 회장)=최근 교육전문 기업인 JEI재능교육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



▶ 신성택(사회 교육58-62 前대법관·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변호사)=지난 5월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임.



▶ 최승희(국사학59-63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지난 4월 20일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겸 민속문화재분과위원에 선임.



▶ 노화준(섬유공학61-65 모교 행정대 학원 명예교수)=지난 4월 17일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장에 취임.



▶ 김광언(고고인류62-66 인하대 명예교수)=지난 4월 30일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에 선임.



▶ 지건길(고고인류62-66 前국립중앙박물관장)=지난 4월 30일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겸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에 선임.

▶ 남덕우(대학원56졸 한일협력위원회 회장)=지난 4월 29일 한·일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아사히(旭日)대수장 수훈.



▶ 임동희(고고인류64-68 동국대 교수)=지난 4월 30일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겸 부형문화재분과위원장에 선임.



▶ 정등준(행정대원65-67 동원산업 부사장 겸 지식경영 고문)=지난 5월 19일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서초지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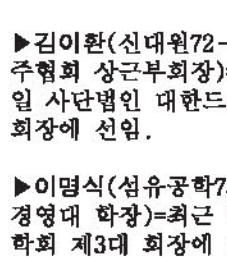
▶ 최종무(외교68-72 前네덜란드 대사)=지난 4월 30일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산하 유엔거버넌스센터 제3대 원장에 임명.



▶ 신희섭(의학68-7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센터장)=지난 4월 30일 미국 국립학술원(NAS)의 국인 회원에 선출.



▶ 조환익(정치69-7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지난 4월 24일 중국 사단에서 열린 아시아무역진흥기판회의(ATPF) 총회에서 내년 4월 한국서 열릴 2010 ATPF총회 의장에 선임.



▶ 김명통(금속공학70-74 전남대 교수)=지난 5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장에 취임.



▶ 정경원(응용미술71-75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5월 22일 임기 2년의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내정.



▶ 김지환(신대원72-75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지난 5월 8일 사단법인 대한드래곤보트협회 회장에 선임.

▶ 이명식(섬유공학78졸 상명대 경영대 학장)=최근 한국신용카드학회 제3대 회장에 선임.

우리말 바로 쓰기

틀리기 쉬운 우리말(6)

“서울에서 시카고까지 비행기 값이 얼마냐?”

이 문장에서 고쳐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한 돈을 말할 때는 ‘값(요금)’이라고 써야 하므로 ‘값’을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어법적 지식, 맞춤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윗층 전세 놓음’을 ‘위층 전세 놓음’으로 고칠 때는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통일한다는 어법 규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단어의 맞춤법은 일정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많다. 물론 특별한 이유없이 각각의 개별 사례로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언어생활을 위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 채 홍 (사대, 70)

1. 내가 생각전대/생각전대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좋겠어.

⇒ ‘생각전대’가 맞는 표현이다.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기 때문이다.
〈예〉‘섬섬하지’의 준말 ‘섬섬지(○)/섬섬치(×)’.
‘깨끗하지’의 준말 → ‘깨끗지(○) 깨끗치(×)’
‘넉넉하지’의 준말 → ‘넉넉지(○) 넉넉치(×)’

2.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임으로 / 시간이므로 문을 닫습니다.

⇒ ‘시간이므로’가 맞다.
체언에 붙어 그 말이 뒤의 사실의 까닭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형 서술적 조사는 ‘-이므로’다.

3. 지난 가을은 경조사가 많아 부조금/부조금을 많이 지출했다.

⇒ ‘부조(扶助)’가 맞다.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예〉사둔 → 사돈(查頓), 삼촌 → 삼촌(三寸)

4. 흙덩이를 잘게 부셔서/부셔서 화분에 넣어라.

⇒ ‘부셔서’가 맞는 표현이다.
‘부시다’는 그릇 등을 깨끗이 씻다, ‘부수다’는 여러 조각이 나게 ‘깨뜨리다’는 뜻이다.

5. 당신이 올 때까지 날마다 기다릴게요/기다릴게요.

⇒ ‘기다릴게요’가 맞다.
어미는 예사 소리로 표기한다. 단, 외문형일 때만 ‘-르까’ ‘-을쏘냐’ 등의 형태로 쓰인다.

6. 큰 회사일수록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는 / 금지하는 구역이 많다.

⇒ ‘금지하는’이 맞는 표현이다.
‘-시키다’는 남이 어떤 동작을 하게 하여 사동을 만드는 접미사다. 서술성이 있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요증 뜻을 분명하게 하려는 심리에서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어의 본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다.
〈예〉소개시키다(×) 소개하다(○) 가동시키다(×) 가동하다(○) 정상화시키다(×) 정상화하다(○)

7. 호도/호두를 까려고 망치로 좀 세게 쳤더니 여러 쪽으로 부셔져 버렸다.

⇒ ‘호두’가 맞는 표현이다.
이는 원래 ‘호도(胡桃)’에서 변한 말이다.
이런 예는 ‘자도(紫桃)→자두’ ‘장고(杖鼓)→장구’ ‘주초(柱礎)→주추’ ‘작란(作亂)→장난’도 있다.

8. 고갯마루에 성황당/서낭당을 지날 때 마을 사람들은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소원을 빈다.

⇒ ‘서낭당’이 맞다.
본래 ‘성황당(城隍堂)’에서 온 말인데 이것이 ‘서낭당’으로 굳어져서 그대로 표준어로 삼았다.
이런 예로는 ‘간난→가난’ ‘관력→과력’ ‘개와→기와’ ‘연계→영계’ ‘환향여→화향녀’ ‘취지부지→호지부지’ 등이 있으며 모두 변한 말을 표준어로 삼았다.

9. 사람들은 좀 추어 올리면/추켜 올리면 으쓱대기 마련이다.

⇒ ‘추어올리다’ ‘추어주다’가 맞는 표현이다. ‘추켜올리다’는 비표준어다. 이처럼 한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사자가 널리 쓰

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 것을 ‘복수 표준어’라고 한다.

예컨대 ‘-거리다/-대다’ ‘가엽다/가염다’ ‘고깃간/꾸깃간’ ‘넉/족’ ‘뒹갈망/뒹갈당’ ‘뜨리다/트리다’ ‘봉숭아/봉선화’ ‘여태껏/이제껏/입때껏’ ‘척/채’ 등 170여 복수 표준어가 있다.

10. 오늘 밤에 죽는 일이 있어도 흥겹지 않게/흥겹지 않게 깨끗이 죽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흥겹지 않게’가 맞다.
‘흥겹다’는 말이나 행동이 불쾌할 정도로 흥하다는 뜻이다.

11. 내 속엔 헛된 바람/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 ‘바람’이 맞는 표현이다.
이는 ‘바라다(所望)’의 명사형이다. ‘바람’은 비표준어다.

12. ‘떠나갈 사 이별이라 외롭기가 짝이 없고 기다릴 사 적막함이란 애달기가/애달프기가 한이 없네.

⇒ ‘애달프다’가 맞다.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13. k기업의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수백여 명/수백 명이었습니다.

⇒ ‘수백 명’이 맞다.
‘수백’이라는 부정수(不定數)에 다시 ‘여’를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더더구나 ‘수백여 명이 넘었습니다’라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다. ‘-넘는다’는 표현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데 ‘수백여 명’은 명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14. 사자와 토끼가 한 우리에서 살고 있는 그런 희안한/희한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 ‘희한(稀罕)’이 맞다.
‘씩 드문 일’이거나 ‘신기한 일’을 뜻한다.

15. 곰곰히/곰곰이 따져 보니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곰곰이’가 맞는 표현이다.
부사에 ‘-이’나 ‘-히’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되는 경우는 ‘-이’를 붙인다는 맞춤법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일찍/일찌기’ ‘오뎅/오뎅이’ ‘더욱/더욱이’ 등이 있다.

16.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데 고가품들은 오히려 날개돋힌/날개돋힌 듯이 팔리고 있다.

⇒ ‘날개 돋친’이 맞는 표현이다.
‘돋다 → 돋치다’에서 접미사 ‘-치’는 일부 동사의 어간에 붙어 강세를 뜻한다(닫치다. 넘치다. 놓치다. 밀치다. 부딪치다 등).

17. 이사과는 껌질이/껌떼기가 없어서 맛이 좋습니다.

⇒ ‘껌질’이 맞다.
‘껌질’은 물질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외피를 뜻한다.
또 껌떼기는 조개나 굴, 호두처럼 단단한 껍질부분을 말하고 있다.

18. 갑작스런 폭우로 강물이 불터니/분터니 드디어 물난리가 났다.

⇒ ‘분터니’가 맞다.
‘분다’는 수효나 양이 많아지다’는 뜻이다.
‘ㄷ 불규칙 동사’ 프로 모음 어미를 만나면 ‘불으니, 불어서’처럼 활용한다. ‘분다’는 ‘불어나다’와 같이 쓰인다.



다람쥐와 청서(청설모)

주변에서 아주 흔한 동물 가운데 우리 동포 대부분이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동물이 있다. 바로 ‘다람쥐(왼쪽 사진, 학명 Tamias sibiricus)’와 ‘청서(또는 청설모, 오른쪽 사진, 학명 Sciurus vulgaris)’로 둘은

같은 포유류, 쥐목 다람쥐과지만 이름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동포들은 청서(청설모)를 무조건 다람쥐로 부르는 것이다.

다람쥐는 체장 15~18cm에 꼬리 길이 10~13cm로 갈색 바탕에 세로줄이 있다. 청서는 회갈색의 체장 25~30cm에 꼬리가 20~25cm로 다람쥐보다 훨씬 크다.

또한 다람쥐는 동절기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며 활동을 않지만 청서는 겨울철도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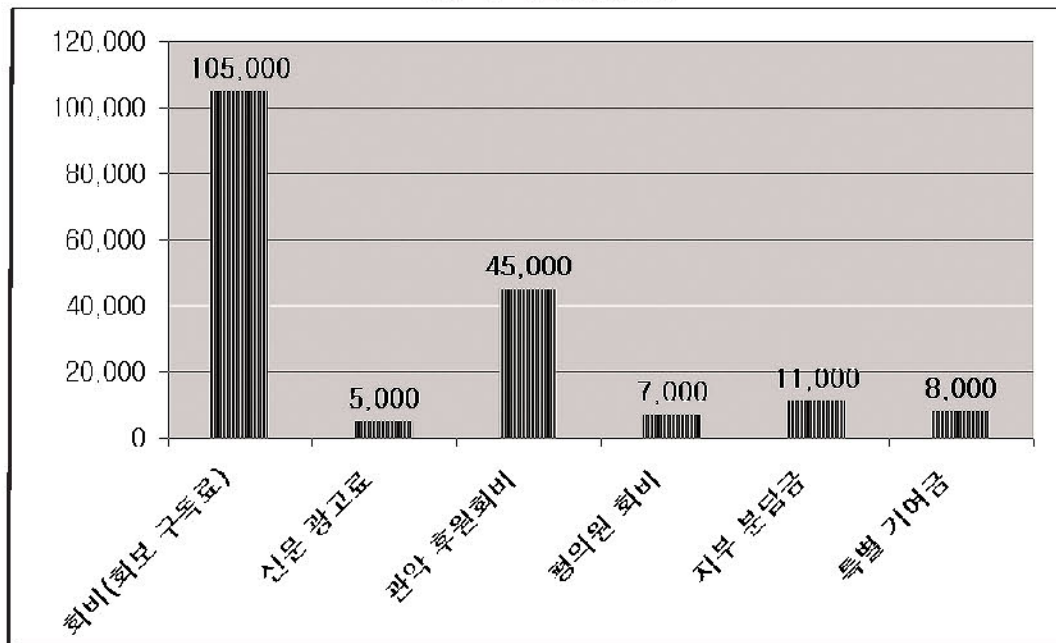
이 두 동물의 먹이는 도토리, 밤, 잣 등의 견과류로 서로 비슷하다. 따라서 먹이 경쟁이 치열해 포악한 청서는 다람쥐만 보면 물어 죽여버린다. 몸

2010회계년 동창회 수입-지출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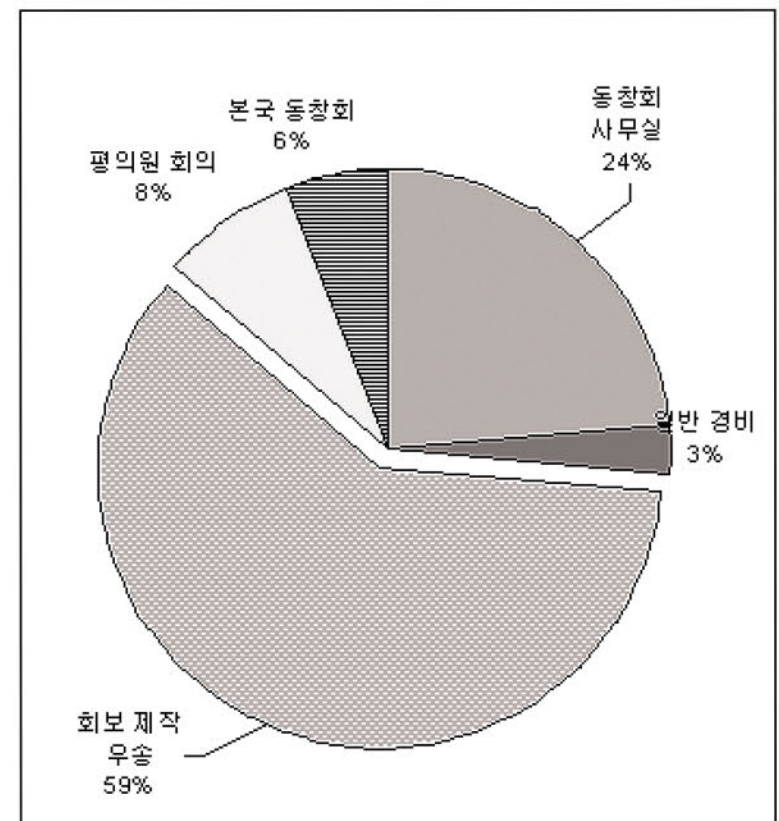
동문들의 회비와 특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미주 동창회의 살림 계획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동창회 1년 예산(\$181,000)의 절반 이상을 동문 각자가 협조하시는 동창회 회비(1년 \$75)에 의존하게 됩니다. 미주 동문 7,700여명중에 2009 회계년도에 회비를납부하신 동문은 967명입니다. 신입 집행부는 동문 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을 배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동문들의 협조를 기대하며 당부드립니다.

수입 예산안
(총액 \$181,000)



지출 예산안
(총액 \$181,000)



항 목	수입 명세	총 액
신문	신문 구독료	\$ 105,000
	신문 광고료	\$ 5,000
이사회비	관악 후원회 이사비	\$ 45,000
평의원	평의원 회비	\$ 7,000
지부 분담금	지부 분담금	\$ 11,000
기타	특별 기여금	\$ 8,000
총 수입		\$ 1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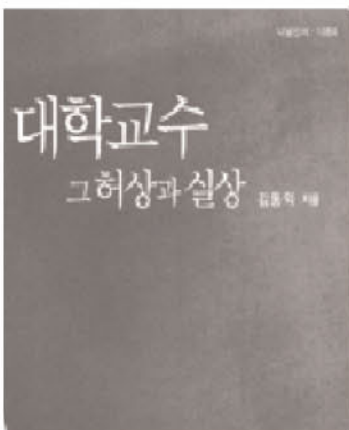
동문 회비 납부자 전체 명단을 지부회의의 별로 분류하던 페이지를 7월호에는 19 페이지에 간략하게 게재합니다. 2009 회계년도가 6월 30일로 종결되었고 제10기 회장단이 출발한 7월1일 이후 2010 회계년도 회비 납부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지부회의의 별 명단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동문 업소에 등재된 약 1천개의 리스트 중에서 연간 \$120 광고료를 납부하신 동문은 09 회계년도에 41 명에 불과합니다. 동문 업소록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소록 계속 등재를 원하시는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동문들의 업소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항목	지출 명세	금액
동창회 사무실	Office Rent	\$5,000
	전화, Fax 및 Website	\$2,500
	사무 인건비 (파트 타임)	\$12,000
	사무용품비	\$3,000
	사무 우편료	\$7,000
	회의 비	\$2,500
	기타 장비, 집기 등	\$5,000
	지부회의 비용	\$2,000
일반 경비	세무사	\$1,000
	예비비	\$1,000
	편집 인건비	\$24,000
회보 발행	편집 보조용역	\$12,000
	회보 취재 활동비	\$3,000
	조판, 인쇄비	\$48,000
	회보 우송료	\$24,000
	Program 및 장비 서비스	\$3,000
	평의원 회의	\$18,000
고국 동창회	고국 동창회 후원금	\$11,000
합계		\$181,000

업소록 광고료 연락은 전화로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 (SNUAAHQ@Gmail.com)이나 우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간 안내



대학교수 그 허상과 실상

김동연 지음

중앙일보 사장, 정부장관 등을 지낸 용인 송담대 김동연(金東淵 법학 53~57)총장이 교수 사회라는 조직에 대한 단상을 비롯해 대학 개혁에 대한 입장, 훌륭한 교수의 자질에 대한 내용을 한 권에 담았다.

김 동문은 이 책에서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하고 교수는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의욕을 북돋고 진로를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멘토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대학은 개혁에 둔감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학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동문은 대학 총장의 선거제는 군의 참모총장을 선거로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하면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화가 왜 필요한가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남 刊·값 1만2천원〉



아는 만큼 더 보이는 유럽 여행

이상목 지음

캐나다 토론토의 한국일보 고정 칼럼니스트인 이상목(李相默 기계공학 59~63)동문이 펴낸 유럽여행 안내서.

‘런던에서 이스탄불까지 지적(知的) 로드맵’이란 부제를 달고 있다.

이 책은 ‘관광명소에 대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와 ‘귀한 체험들을 어떻게 자신의 파일에 잘 저장 정리할 수 있을까’를 포인트로 삼았다.

저자는 런던에서부터 파리, 알프스, 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로마, 나폴리, 아테네, 이스탄불까지 주요 여행지들을 가로지르며 명소 체험을 했다.

그리고는 그 전성시대의 주역들을 역사와 문화의 현장으로 불러냄으로써 관광 대상물을 흥미있게 접근시키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1988년 ‘문학과 비평’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링컨 생가(生家)에서’, ‘백두산 들쭉발에서’ 등의 시집을 펴냈다.

〈다지텔북스 刊·값 13,500원〉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임현진 지음

모교 사회과학대학 임현진(林玄鎭 사회67~71)학장이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연구총서의 하나



로 출간했다.

이 책은 현대 한국의 지난 30년 동안 이뤄진 사회운동의 전개와 이를 통한 진보정당의 건설에 관한 성공과 실패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1980년대 말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면, 이러한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일부 민주이나 시민 운동진영의 참여자들이 해방 이후 오랜 염원이었던 진보정당 건설을 시도했다.

바로 ‘한겨레 민주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이라는 네 정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진보정당의 등장, 전개, 발전, 해체를 가려온 정치기회 구조, 시민사회적 기반, 추진주체의 구조와 능력 등 세 가지 조건을 분석했다.

그리하여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진보 정당의 가능성과 한계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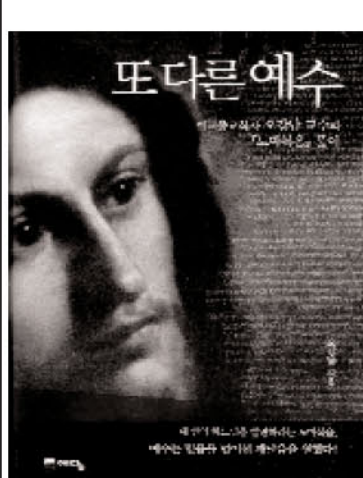
〈서울대출판부 刊·값 1만3천원〉

한국 음악의 뿌리 팔도 국악

이용식 지음

‘국판의 진도사’라 자부하는 국립국악원 이용식(李庸植 국악 85~90) 국악 연구실장이 한국 전통 음악의 원류인 국악에 대해 포괄적으로 연구한 책.

이 동문은 국악의 유래, 대금·피리·해금·아쟁·호적·장구 등 국악에서 쓰이는 악기의 특성, 국악을 지켜온 무당들, 팔도의 국악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부록으로 국악 일정을 정리한 달력과 국판이 벌어지는 장



또다른 예수

오강남 지음

캐나다 리자이나대(Uni. of Regina) 명예교수(비교 종교학)인 오강남 동문이 ‘또다른 예수(예단 刊)’를 펴냈다.

이 책은 개신교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도마복음’의 해설서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 동문은 ‘예수는 없다’라는 저서로 이미 큰 동향을 일으킨 바 있어 이 저서도 상당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도마’는 예수와 쌍둥이 형제로 주장되고 있는 인물로 도마복음

은 그의 신앙이 담긴 복음서다.

도마복음은 기존의 신약성서에 있지 않은 내용으로 1945년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나그함마디 산기슭에서 발견된 13봉치의 고문서 속에 포함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기존 복음서와 크게 다른 점은 예언의 성취와 부활·재림·최후의 심판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깨우침이 강조된 내용이라는 설이 있다. 즉 예수는 믿음이 아닌 깨우침의 소리를 말했다는 것이 요체라는 것이다.

성서에는 마태복음·마가복음·누가복음·요한복음 등 4개의 복음서만 포함돼 있지만 초대 교회에는 80개 이상의 복음서가 있었다고 한다. 도마복음을 비롯해 메르로복음·야고복음 등이 다. 이 같은 복음서들 중에는 예수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은 초기 교회들이 각각 그들의 교회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사도들의 이름으로 복음서들의 권위를 높이교자 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많은 교리와 복음서들은 치열한 교리 논쟁을 통해 4복음서 이외의 복음들은 이단의 복음으로 배척돼 버려졌었다는 것이다.

도마복음은 지금까지 인류를 폭력과 살생으로 몰아넣은 종교간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는 예수의 비밀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의 유일성’을 뒤흔드는 존재가 돼 배척되고 있다. 이에 오 동문은 도마복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단시하는 시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오 동문은 “어느 종교나 심층적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은 소수에 속할 수밖에 없지요. 불교도 불성을 찾아야 한다는 쪽이 주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성 불교가 주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오 동문은 또 “이 책에서는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진리란 내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의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불교나 힌두교나 도교 등 어느 종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종교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고 밝힌다.



소, 연락처를 수록했다.

이 동문은 “무당의 노래와 춤, 약사의 반주 음악으로 전통공연 예술의 정수로 승화된 국판은 전통문화의 보고로 소중히 보존해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한다.

〈서울대출판부 刊·값 1만3천원〉

따뜻한 가족

김후란 지음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김후란(金后蘭 가정교육 53)이사장이 등단 50주년, 반세기를 맞아 70여 편의 작품으로 열 번째 시집을 펴냈다.

이 시집은 온갖 기계문명의 홍수와 자본만능의 물질주의 팽배현상 속에서 인간상실, 가족해체가 심화돼 가는 어두운 풍경 속에서 인간 회복을 노래한다.

김 동문은 끊임없이 시의 깊이와 언어의 절제를 도모하면서 작품을 통한 정서적 교감이 이웃에 먼저가는 등불이기를 희구한다며, 작은 목소리로 함겨워하는 이들의 삶을 포근하게 보듬어 주고 북돋워 주고 싶다고 말한다.

〈시향 刊·값 1만원〉

위와 한 알의 모래

김현찬 지음

인제대 산부인과 교수를 지낸 김현찬(金顯燦 의학 58~64) 아이사랑 산부인과 진료자문의(동문이 자신의 호를 따서 ‘嚴과 壹砂’라는 수장집을 펴냈다.

이 책에는 골프, 고교 동창, 기억에 남는 편지, 노년 여성의 우울증, 명의(名醫)의 기본, 미국 연수, 행복한 노후 등 20여 편의 단상이 담겨 있다.

특히 존경받는 교수의 요건인 5T(Teach, Truth, Think, Tough, Trust)를 소개한 부분과 요즘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유능한 교수는 5M(즉, 치장(Make up)을 하고, 유행(Mode)을 따르고, 이권을 쫓아 옮겨 다니고(Move), 때로는 마스크(Mass communication)에 출연해 허세도 부리고, 무엇보다도 금전(Money)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명랑기획 刊·비매품〉

Essays on History

김희준 지음

전북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김희준(金熙俊 철학 61~65)동문이 37년간의 교단생활을 정리하면서 현대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한 권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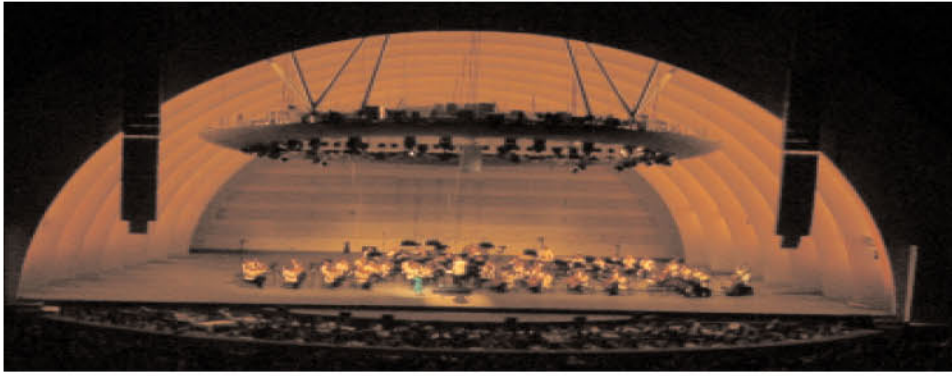
1부는 20세기 독일의 실존철학자 하이데거와 독일 Spiegel의 인터뷰, 영국 무신론적 철학자 안소니 플루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 이탈리아 해철학과 도메니코 로수르도와 교신내용, 국내 철학자 박종홍 교수에 대한 소감 등을 영어와 독어로 소개했다.

2부는 전북대 철학과 워크숍에서 발표한 김동문의 논평문을 시의에 맞게 기록했다. 〈비매품〉

2009년 7월1일부터 출범한 제 10대 서울대 미주 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Tel & 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지역 동창회 소식



남가주 동창회

제 9회 '가족의 밤'으로 환상적 추억 만들기

가정대 동창회(회장 김옥경) 주최로 지난 7월11일 Hollywood Bowl에서 '가족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올해 9회째로 매년 여름철 저녁 남가주 동문들이 가족과 함께 Hollywood Bowl에서 모여 음악을 즐기며 동문들간 소식을 주고 받으며 우애를 다지는 행사다.

올해 '가족의 밤'은 35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고의 참석율을 보였다.

행사는 먼저 Hollywood Bowl 옆 Highland Camrose 공원에서 피크닉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Hollywood Bowl로 옮겨 음악감상을 비롯한 본 행사에 들어갔다.

이날 가족들은 Henly Mancini의 딸 Monica Mancini의 목소리로 Henly Mancini의 명곡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이 날 '가족의 밤'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참으로 감동적이었고 아름다운 밤이었다"고 술회했다.

다음은 동문 인턴 이승원의 관람기중 일부다.

"...공연 시작 전 마련된 저녁은 다시 한번 서울대 동문회의 힘과 우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선배님들께서는 LA에 처음 발을 내딛은 그 날처럼 손녀, 딸, 조카같은 우리 인턴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맛있는 음식과 와인들 앞에 두고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참으로 정답고 보기 좋았다. 이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 공연장으로 향했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다. 처음 Ball(무도회)로만 알고 있었던 헐리우드 볼(Bowl) 공연장이름이 단번에 이해가 갔다. 돔 모양의 무대를 중심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연장

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기대 속에 LA Phil 공연의 막이 올랐다. 연주는 역시 환상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이곳 이 순간이 만들어낸 분위기였다. 북두칠성이 보이는 여름 밤 하늘 아래 뒷 산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선율을 읊미하는 이런 신선 노름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와인 한 모금을 입에 넣고 음악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다...와인 탓인지 분위기가 맞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분 좋게 취기가 올랐다.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동기들을 바라봤다.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혜원이와 정인이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오늘 오지 못했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야"라고 말하는 듯했다...소중한 추억을 선사해주신 서울대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워싱턴주 동창회

월례 테마 세미나와 무료 진료봉사 활동 펼쳐

Senior Club이 주최하는 월례 세미나 친목 모임이 지난 5월 9일 Mercer Island Community Center에서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이회백 동문이 '땅'과 관련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6월에는 박찬형 동문(의대 56)의 '암 예방과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봉사 활동도 활발해 신장범·변재준 동문의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표 1-2 참조).

프랙터 치료, Office Procedure의 시술 등 직접 치료와 정기적 진료는 물론 Follow up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 봉사활동에는 민주 병통이 장소제공을, 대학 동문연합이 자원봉사자 파견과 홍보활동을 펴고 있으며 서울대 동문회 및 개인들이 환자와 진료를 위해 기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 기금은 김의철 동문의 500달러를 비롯해 김주용·김철환·변재준·이종성·이회백·한종하·윤태근·이승 동문 등이 각각 100달러씩을 제공했다.

진료장소와 진료에 소요되는 일부 물품 및 장비를 부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동문 제의들의 도네이션이 필요해질 것이다.

7월 첫주부터는 새 진료 장소로 옮겨 보다 나은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Tel 253-550-6876. e-Mail snumca@gmail.com)'에서 진료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료 효과와 이에 대한 호응도도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성학 동문(의대 58)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Korean Cancer Survivors Association(KCSA)을 이끈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7월18일(토)에는 Summer Trip으로 Leavenworth 여행을 다녀왔다.

8월8일에는 예년과 같은 장소(Sammamish Lake)에서 여름 야유회가 있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문 제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진단별 환자분포

진단범주	환자수	%
Health Screening	35	11.0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혈관	71	22.3
근골격계	95	29.8
소화기	27	8.5
호흡기, 코, 귀	20	6.3
비뇨기, 방광	17	5.3
여성질환	7	2.2
피부, 눈	9	2.8
내분비, 혈액	3	1.0
정신(우울, 불안 등)	24	7.6
신경계	11	3.4

지난 1년간 매월 1~3주 토요일 한번도 빠짐없는 진료 봉사로서 그동안 총 24회, 259명에 대한 의료 봉사를 해왔다.

앞으로는 보다 향상된 진료 서비스를 위해 진료 장소를 실제 Clinic Setting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 진료활동은 처방전 발행, 침과 카이로

신장범 동문이 전화 개설 및 전화비 부담과

*치료 및 시술

내용	환자수	%	비고
약 처방 발행	96	37.1	
혈당검사	30	11.6	
소변검사	5	1.9	일부 환자 누락
침, 주사	70	27.0	국소주사 포함
카이로	8	3.1	일부 환자 누락

뉴잉글랜드 동창회

보스턴 봄 음악회 대 성황

지난 4월 18(토)일 Grace Episcopal Church에서 보스턴 봄 음악회를 열었다. 동창회 행사뿐 아니라 지역 모든 우리 동포들을 위한 행사라는 취지를 살려 많은 동포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250석이나 되는 교회 의자가 모자라 간이의자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였다.

장수인 음악위원장과 BU 방문 교수로 와 있는 윤경희 세종대 교수를 중심으로 음악적인 부분을 준비하였으며, NEC나 BU 재학생들 및 졸업생들, professional로 활동 중인 음악가들이

연주자로서 참여하였다.

많은 한인들이 좋아하는 Pachelbel의 Canon을 비롯하여 Vivaldi의 사계 중 봄, Bach의 Brandenburg 협주곡 5번, 영화 Scent of a Woman의 Por una Caveza 등의 현악곡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아리아 및 가곡을 선보였다. 특히 애플 시간에 청중들과 교국의 정취를 회상할 수 있는 곡들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곁들임으로써 청중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 행사의 또 다른 중요한 취지였던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 수여식도 거행했는데, MIT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의 변인수 양, MIT 재료공학과 박사과정의 주재범 군, MIT 건축학과 박사과정의 조윤희 양, Harvard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의 조영주 양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각각 1,000달러의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 받았다.

6월 13일 Bamboo restaurant에

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음악회에서 전체적인 연주 및 프로그램 구성에 큰 도움을 준 윤경희 교수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상래 회장의 평의원회 보고에 이어 음악회를 결산하고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



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음악 위원장으로 수고해준 장수인 위원장과 김유정, 이상원 위원도 함께 자리를 하였다. 또한 앞으로 있을 산행 및 연말파티, 총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이재형), 총무(주재범), 학생간사(박찬석), 교문(성낙호)에 대한 임명 및 동의를 하였다.

지역 동창회 소식



조지아지역 동창회

애틀랜타서 골프 및 야유회 즐겨

애틀랜타 지부 회의 동문들이 6월 6일 애틀랜타 동쪽 외곽에 위치한 Hard Labor

Creek State Park에서 야유회와 골프 대회를 가졌다. 이날 70여 명의 동문(부

부 포함)들이 참석하여 이 곳 동문회에서 유례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참가자들중 25명의 골퍼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슬이 덮인 그늘을 뚫으면서 골프를 즐겼으며 이어 야유회에는 가족들이 함께 하여 식사와 게임을 즐기며 초여름 남부의 초록을 만끽했다.

밴쿠버지역 동창회

동문들 정계 진출 움직임 활발

올 초부터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동문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지난 5월 12일 주 총 선거에 장희순 동문

(73)이 BC 녹색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 뒤를 쫓아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는 이근백(66) 동문이 공천 신청을 했다.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

구역은 뉴 웨스트-코퀴틀람-포트무디 선거구로 지난 번에는 김연아 상원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이다.

캐나다 역시 한인 동포들의 권의 신장을 위해 정계 진출이 급선무인 만큼 두 동문의 정계진출을 위한 도전은 우리 동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 거주 동문은 물론 타 지역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바라고 있다.

오리건지역 동창회

Rooster Rock State Park에서 피크닉 성황

지난 7월 11일, Rooster Rock State Park에서 동문과 가족 총 60명이 참석한 여름 피크닉을 가졌다.

좋은 날씨 덕분에 동문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즉석 부침이와 금방 우려낸 커피가 인기가 좋았고, 갈비구이와 콩치구이 또한 일품이었다. 야외에서 먹는 따끈한 우거지국, 떡과 함께 먹는 시원한 식혜의 맛은

별미였다.

식사가 끝난 후 동문 소개와 빙고 게임, 모자 돌리기 게임, 노래 자랑 등이 있었고, 동문 모두가 상품을 받았다.

새 임원진으로는, 부회장에 백대현(상대 77), 총무에 박희진(농대 78), Intel 대표로 이병찬(공대 85) 동문이 선출되었다. 또한, 우연히도 강가에 그림을 그리려온 이른

동문회에 초대했다.

이 날 김미원(김왕도, 공대 75 부인)씨, 라상희(라제관, 공대 72 부인)씨, 백연화(백대현 상대 77 부인)씨, 박희진(농대 78)동문, 박혜선(자연 79) 동문들이 크게 수고 해주었다.

또한 박락순(사대 47) 동문과 백대현(상대 77) 동문이 기부금을 내주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종삼 박사 별세

워싱턴 DC의 이종삼 박사(문리 54)박사가 지난 6월 5일 자택에서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 이 박사는 조지타운 대학 전기 공학과와 가톨릭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컨설팅 회사인 JS Lee Associates 사장을 지냈다. 이북 김주에서 출생한 이 박사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수학과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뒤 조지타운 대학에서 전기 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박사는 군사 및 우주통신 부문의 개발 연구로 GPS와 이동통신 분야인 CDMA의 기초기술을 개발했다. 이 공로로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로부터 IEEE Fellow로 선정된 바 있다.

▶박준태 동문 모친상

박준태 동문(국제경제과 80)의 모친 신복해 여사가 지난 7월 13일 포항에서 별세하였다.

▶송순영 회장 모친상

송순영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장 모친 장혜자 여사가 지난 7월 6일 서울 순천향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8세.

▶오현명 교수 타계

한국 성악계의 거목 오현명 명예교수가 24일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1924년 중국 만주에서 태어난 오 교수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국립오페라 단장, 한양대 음대 학장 등을 지냈다.

1948년 한국의 첫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출연한 뒤 50여 편의 오페라 무대에 섰다. 1964년

부터 1982년까지 국립오페라단에 재직 중 40여 편의 오페라를 연출했다.

지난 해 3월에는 오페라 한국 도입 60주년 기념으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라 트라비아타' 콘서트 무대에 서기도 했다.

특히 고인은 1963년부터 한국 가곡으로만 프로그램을 꾸민 독창회를 열어 '가곡의 전도사', '노래의 시인'이라 불렸다.

변훈(1926~2000)이 작곡한 가곡 '명태'를 구성지게 불러 대중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토막소식



황우석 박사 9.11 구조견 복제

트래커 다섯 마리 새로 태어나

황우석 박사팀이 미국의 9.11테러 인명구조 영웅견 '트래커'를 복제해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의 저명한 바이오 기업 'Bio Arts' 수암 생명공학연구원이 밝힌 것이다. 트래커는 독일의 셰퍼

드 종으로 9.11사태 당시 뉴욕의 붕괴된 쌍둥이 빌딩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견의 일원이었다. 트래커는 무려 내려진 잔해 10m 지하에서도 생존자를 발견해 내고 구조 능력을 발휘한 영리한 구조견이었

다. 그러나 이 개는 사고 현장의 유독 가스에 오랜 시간 노출돼 중추 신경이 마비됐고 결국 퇴행성 신경장애로 사지를 못쓰다가 지난 4월 숨을 거뒀다.

이에 트래커의 주인 제임스 시밍턴씨가 트래커의 복제를 'Bio Arts'에 의뢰했고 이 회사는 트래커의 DNA를 황박사와 수암생명공학 연구원에 보냄으로써 복제가 이뤄진 것이다.

트래커의 복제는 지난해 말 처음 성공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마리가 태어난 것으로 'Bio Arts'는 밝혔다.

연구원 측은 별도의 연구기관에서 DNA조사를 통해 복제가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제된 트래커의 강아지들 이름은 틀러스트, 솔러스, 벨러, 프로디지, 데자뷰로 지어졌다. 이 강아지들은 원래 주인인 제임스 시밍턴씨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USSE FOREST 서 하계 피크닉 열어

새 동문가족 등 140여명 즐거운 하루

“서울대의 교목(校木)은 무슨 나무일까요?”
“그러면, 서울대의 교조(校鳥)는?” “교화(校花)는 무엇일까요?”

싱그러운 초여름을 맞아 지난 6월 20(토)일 시카고 동문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야유회에서 퀴즈 응대시간 사회자가 내민 질문들 중 일부다.

이 날 퀴즈 응대 사회자는 모교와 관련된 문제를 위주로 진행해 나갔지만 70대 이상의 노(?)동문들이 척척 알아 맞히는 지력으로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우스개로 간혹 정답이 없는 질문도 했지만 응답자들 중 일부는 아주 생뚱한 대답으로 모처럼만의 나들이를 더욱 즐겁게 했다. 이런 것도 ‘우문우답(愚問愚答)’이라고 할 수 있을까.

Busse Forest에서 열린 이 날 야유회에는 근래 보기 드물게도 14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 날 주최측은 주식 메뉴 중 하나로 갈비 100파운드, 고등어 120피스(이 피스는 30마리)를 준비했으나 예상 외의 참석률로 순식간에 동이 났다.

노영일(의학 62) 동문 회장의 사

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은퇴 동문들과 한국에서 이곳으로 새로

정착한 관악세대 동문들의 여러 가족이 소개됐다.

노영일 회장은 “근래 정말 보기 드물게 이처럼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동창회가 더욱 번창함은 물론 야유회가 더욱 알차게 됐다”고 치하했다.

동문회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에 이어 시카고 오케스트라 김은경(첼로) 동문을 비롯한 4중주의 클래식 음악이 이 날을 더욱 뜻 깊게 했다.

김 동문은 자신이 소속한 시카고 오케스트라 단원까지 초빙해와 동문 가족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전날 밤까지 폭우가 쏟아졌던 시카고 지역의 기후는 이 날 맑게 개였으며 화씨 9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그러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동문들과 가족들은 선후배들이 한데 어울려 내내 즐거운 분위기였다.

장기남 동문 시카고 한인 회장 취임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돼

장기남 동문(문리, 62)이 시카고 한인 회장에 7월1일 취임했다. 장기남 회장은 지난 2년간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건립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중 200만 달러 가까운 기금을 걷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시카고 문화회관을 시카고 한인회로부터 독립된 영구 단체로 체제를 다짐하는 과정에서 한인회와 의견 차이가 발생, 자신이 한인회장이 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게 된 것이다.

시카고 지역에서 서울대 동문이 한인회장에 나선 것은 한인회 40년 사상 처음이며 장 동문이 회장에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른 후보들이 나서지 않아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 됐다. 10만 동포를 대표하는 시카고 한인회는 근년에 회장 선거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져 2년 전 선거때는 약 7천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열기를 보이기도 했으며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었다.

장기남 한인회장은 취임 후 큰 과제 중 이 지역 동포들의 큰 관심사인 문화회관 사업을 완결 짓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다. 또한 2010년 센서스에 이 지역 한인들이 누락없이 최대한 집계되도록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Complete Count Committee를 장 회장의 리더십으로 한인회가 주도하고 있다.

↓ 퀴즈 대잔치·보물찾기·칩샷 등으로 이어진 행사에서 동

문들은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나 마음껏 하루를 즐겼다.



비무장 지대에 평화공원 구상

골든클럽 'DMZ Forum' 해설 들어
옐로우스톤, 아프리카 자연공원 가능

시카고 동창회 골든 클럽은 한국의 비무장 지대(DMZ)를 국제 자연보호 구역으로 설정하고 평화공원을 설립하려는 DMZ Forum의 회장 Hall Healy씨를 초청, 그의

국제적 캠페인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7월 9일 골든 클럽의 특별 세미나 강사로 나온 힐리씨는 한국의 비무장 지대는 동반구에 남대평양



해역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으로부터 철새들이 계절 따라 이동해 모여들며 멸종 위기의 식물들과 동물들이 서식하는 지구상에서 독특한 그런 벨트이

므로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155마일에 4킬로 미터 폭으로 전개되는 DMZ에는 5개의 강이 흐르며 75%가 수림이라 1천200여종의 식물과 85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의 상당한 수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멸종위기의 희귀 동식물들이라고 그는 전했다.

이곳을 아프리카의 자연공원이거나 미국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처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관광지 개념으로 Korean DMZ Peace and Natural Park을 개발하면 Eco-system을 Economic system으로 변환하여 한국이 관광 외화 획득에 막대한 자원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힐리씨는 이러한 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테드 터너씨(CNN설립자)가 DMZ Forum을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방 자치 기구 산하 단체

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정치적 장애와 자금난이 길을 막고 있다고 밝힌 그는 정치적으로는 비무장지대를 공유하는 북한 측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이 지역에 개설된 지뢰가 약 100만 개로 추정돼 정치적 해결이 된다고 해도 지뢰 제거작업에 1개당 1천 달러가 소요되면 그 비용만도 현재로는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UNESCO와 같은 국제 기구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원대한 구상을 현실화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는 힐리씨는 재미 한인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모금에 호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락처는 : Mr. Hall Healy
The DMZ Forum, Inc.
1471 Wilson Road
East Meadow, NY 11554
(516) 578-7969
www.dnzforum.org

동문 모임 순례



시카고 골든 클럽 회원들이 지난 4월 스페인 여행 중 바르셀로나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정서적 정신적 연령은 아직 춘계죠”

동창회보 편집실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모임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합니다.

그 첫번째로 '시카고 골든 클럽'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각 지역 동창회에서 이같은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서울대 동창회의 단체 중 하나로 타이틀이 의미하듯 65세 이상의 모임이다.

이 Golden Club은 지난 2006년 당시 동창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박연희(간호 61, 한상호 동문 부인)이 제의해 처음 발족됐다.

목적은 은퇴한 Senior 동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친목과 여가 선용, 교양 함양은 물론 사회 봉사활동 등에 두었다.

클럽은 초대 회장으로 강수상(의대 47)동문을 선임했으며 다음 해 두번째 회장은 이용락(공대 48)동문이 선출돼 2년을 연임했다. 현재는 한상호(의대 56) 동문이 회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모임은 매달 첫째 목요일 월례 조찬회를 갖고 있으며 연간 6회 정도의 문화 교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건강을 비롯한 제반 분야

연 6회 문화 교양 세미나 가지고 장단기, 테마 여행으로 친목 다져

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첨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레저는 연간 한 차례의 장기 여행과 두 차례 정도의 단기 여행이 시행되고 있다.

그간 장기 여행으로는 Panama Canal Cruise, Brazil-Argentina-Iguassu Fall Tour, Portugal-Spain Tour를 즐긴 바 있다.

단기 여행은 2박3일 정도의 여정으로 관광과 Golf Outing을 겸하고 있다.



Chicago Golden Club



강수상 초대 회장



이용락 2대 회장



한상호 현임 회장



시카고 골든 클럽 회원들의 지난 6월 Wine Tasting 장면

또한 그 때 그 때 시의적으로 적합한 테마 여행이나 레저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열린 Chicago Botanic Garden 답사겸 Wine Tasting도 그 예 중 하나였다.

이 행사는 박창만(공대 56, 현재 Treasure) 동문 주관으로 20여 명

의 동문이 모여 그 날 하루 Vegetable-Fruit Garden 답사와 전시회 관람 등 관광은 물론 Wine Tasting을 즐겼다.

이 외에도 지난 해부터는 Recreation Program을 도입해 Bridge Game, 장기, 바둑, 마작 등을 즐기기도 하고 있다.

Out-Reach Program으로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Chicago Korean Culture Center) 건립에 금전과 정신적 협조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 더 폭넓은 봉사 활동을 구상 중이다.

65세 이상이라면 나이로 보아 인생의 추계라고도 하겠지만 정신적 정서적 연령은 아직도 20~30대 춘계에 있는 듯 하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이같은 Golden Club의 모임이 우리에게 더욱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덕분일 것이다. 또한 동문이 서로 돕고 함께 즐기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바다.

시카고 지역 서울대 동창회의 Golden Club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각 지역 동문들의 모임에도 좋은 귀감이 되리라고 믿는 바다.

‘골든클럽’ 미술감상회

시카고 골든 클럽이 임의집 동문(미대 59년 졸)화백 주관으로 지난 6월18일 세노야에서 ‘미술 감상회’를 가졌다.

‘World’s Great Arts Appreciation Hour’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 행사는 임 동문이 지난 1년간 시카고 한미 TV(Ch-41)에 출연하면서 특집으로 꾸민 내용을 위주로 진행됐다.

레오나르도다빈치, 미켈란젤로부터 중세와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작품들에 대한 감상과 해설은 회원들로부터 시간가는 줄 모르게 했다.

특히 우리의 조선시대 김홍도, 신윤복 등의 작품과 이중섭, 박수근 등의 근세기적 작품은 진한 동포애를 불러일으키게 했다.

동참회비 및 업소특 광고비 납부자 현황

회보 6월호 게재 이후 뉴욕에 납부한 동문들

회비 \$75

김인기(문 58)
신춘희(간 53)
곽노환(문 48)
김경수(치 58)
장일선(약 44)
안지영(대학원 98)
이영수(치 55)
진홍우(의 56)
강학기(약 68)
김중석(문 55)
이병무(법 57)
정진묵(의 51)
조영미(대학원 80)
석진경(약 96)
박홍우(문 61)
여종석(공 85)
김수영(사 57)
용준규(의 48)
박희식(수 55)
김양호(의 51)
김제철(공 58)
김경순(상 59)
송기성(사 52)

회비 및 특별 후원금

김호선(문 69)	\$100	
정수일(대학원70)	\$150	
최종진(의 63)	\$150	
이충호(의 63)	\$75	\$200
이준무(음 65)	\$75	\$200
김정순(법 53)	\$75	\$200
이상훈(법 60)	\$210	\$600
이건일(의 62)	\$210	
이전구(농 60)	\$10,000	

특별 후원금

임광수(총동참회장) \$3,000

2009년 7월 1일 이후 시카고 본부에 납부한 동문들

회비 \$75

배영섭(의 54)	이규진(약 60)
윤준식(법 58)	김영배(공 78)
천병수(공 70)	한인섭(문 55)
김상순(상 67)	이병무(치 70)
김상만(음 46)	전장호(공 55)
우옥자(간 60)	박국종(법 57)
김병호(상 57)	김영덕(법 58)
이현호(공 58)	김정주(문 60)
이승자(사 60)	송순영(문 52)
최순홍(문 60)	이윤모(농 57)
정 호(공 62)	조대현(공 57)
장기남(문 62)	박영규(농 57)
구경희(의 59)	조중행(의 63)
박 숙(의 64)	

관악후원회비

송승영(문)	53)	\$5,000
구경희(의)	59)	\$1,000
김윤태(의)	63)	\$1,000
박 숙(의)	64)	\$1,000
임현재(의)	59)	\$100
강창만(의)	58)	\$200
김태기(의)	62)	\$100
김영배(공)	78)	\$200
김정주(문)	60)	\$200
김상준(상)	67)	\$300
박국중()		\$200
이병무()		\$200

업소특 광고비

김영배(공 78) \$120.00
김상순(상 67) \$120.00

회비 납부 및 후원금 기증

- 우측 회비/후원금 양식을
카피하시고 작성하신 후
Mail 또는 Fax해 주시거나
직접 이 종이에 작성하신 후
오려서 아래 주소로 Check와 함께
Mail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Check를 보내실 때 우측 양식을
함께 보내주셔야 회보의 납부자
명단에 정확히 기재됩니다.

Payable to SNUA-USA

보내실 곳: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연락처:
Tel / Fax: (847)441-
0011
Email: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성명:(한글)		(영문)		작성일:	년	월	일
				성별:			
단과대:	학과:	대학원:	입학 년도:	졸업 년도:			
현주소:							
전주소:							
전화/집:		Cell:	E-mail:				

n	동창회비 (구독료)	관악 후원금				중신 이사비	모교발전기금 (백만원기금)	지부 분담금
2009. 7. 1.- 2010. 6. 30.	\$75	\$200	\$200+	\$500	\$1,000	\$3,000		
2010. 7. 1.- 2011. 6. 30.	\$75	\$200	\$200+	\$500	\$1,000	☐		

동창회보 광고 신청

일반광고{아래 가격은 1개월 기준입니다. 광고 규격중 선택()}						업소특 리스팅
Color \$1,500 B/W \$750	\$400	\$250	\$250	\$200	\$150	2008. 7. 1.- 2009. 6. 30 ☐
전면 w240mm h330mm	1/2H w240mm h165mm	1/3H w240mm h110mm	1/3V w120mm h220mm	1/4H w240mm h82.5mm	1/6V w120mm h110mm	\$120
1	2	3	4	5	6	2009. 7. 1.- 2010. 6. 30 ☐ \$120

n (Check or Credit Card)

Amount: \$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Card: visa ☐ Master ☐		Card Holder Name:	
Card No.:		Security Code:	Exp. Date:
Signature:		Address: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및 임원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송순영(문)

차기회장: 김은종(상)

관악후원회장: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이준행(?)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정립(상) 서동영(사)
김태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중민(공) 한재은(의)
신용남(농) 김지영(사)

상임이사회: 이문휘(문) 윤상래(수) 정홍택(상) 민병덕(의) 김세중(공)
곽상준(약) 김종율(사) 최수용(상) 최철용(농) 진봉일(공) 성기호(약)
양순우(법) 정인식(상) 김영덕(공) 한창섭(문) 오인석(법) 권태전(사)
노용면(의) 임건식(음) 송관호(의) 신용남(농) 강연식(사) 이내원(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김정주(문)
총무국장: 이승자(사)
재무국장: 박 숙(의)
특별간사: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위원

발행인: 송순영(문)
주 필: 이윤모(농)
편집위원: 고병철(문) 이승자(사) 조대현(공) 윤효정(사)
편집장: 이기준

논설 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채홍(NY) 라철삼(LA) 백 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패(SF) 한창섭(NY)

<이상 논설위원은 7월 20일 현재 봉사를 허락하신 동문들이며
앞으로 논설위원 수락을 하시는 동문들의 명단을 추가로 게재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지역 지부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제명혜(가정 71입) 714-809-4481 yvonnelee52@msn.com
	차기회장	김은종(상대 59입) ekim@pcr-lms.com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차기회장	임승래(문리 66입) 510-381-1054 sk0425@hotmail.com
샌디에이고	회장	박우선(공대 57입) 858-603-6878 hajipark@cox.net
	차기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뉴욕	회장	신용남(농대 70입) 718-463-3131 peters1027@aol.com
	차기회장	한경수(문리 57입) 516-742-8483 jsh1206@aol.com
워싱턴DC	회장	박무광(약대 60입) 301-330-6921 moopark@nlh.gov
	차기회장	정상목(약대 83입)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시카고	회장	노영일(의대 62입) 708-226-0345 youngilro@comcast.net
	차기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kimino@aol.com
필라델피아	회장	손재욱(가정 77입) 267-736-2992 jhaah@timhaahs.com
	차기회장	전방남(상대 73입) 215-360-4138 jeonbana@drexel.edu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lbokkim@yahoo.com
댈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lee4@naver.com
	차기회장	이석호(문대 78입) 972-475-1184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뉴잉글랜드	회장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sville@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남세현(공대 67입) 651-285-9715 ssnam@mmm.com
	차기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워싱턴주	회장	김재훈(공대 72입) 425-681-4253 jkim1@ieee.org
	차기회장	신창범(법대 73입) 206-949-787 changshin@eschelon.com
오하이오	회장	최인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i613@gmail.com
	차기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회장	김명자(문리 62입) (402) 493-2284 jtkohr@msn.com
	차기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전일수(상대 50입) 305-606-1982 eugenechun@hotmail.com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lpark@daum.net
유타	회장	배유환(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캘리포니아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510-655-3239 gideon@80square.com
	차기회장	정량수(의대 60입) 828-442-8711 drchung3@yahoo.com
로키마운틴스	회장	강창운(의대 72입) 720-344-2815 mydreamis@comcast.net
	차기회장	전남인(사대 입) 719-592-0037 jhonjeun@hotmail.com
애리조나	회장	고광선(공대 57입) 425-488-6326 ncyangkoh@gmail.com
	차기회장	오덕경(의대 58입) jindori@cox.net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입)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김진영(공대 72입) 503-686-038 jin.y.kim@intel.com
알래스카	회장	장근유(미대 58입) 907-748-0067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이승찬(농대 55입) 647-246-2405 schanlee@rogers.com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ikim@email.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오강남(문리 61입) 604-461-5178 soft103@hotmail.com
	차기회장	이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차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미주동문 '인명록'을 12년 만에 새롭게 발간합니다.

우측의 책은
광고용 이미지입니다.



모교와 후진을 위한 사업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SNUAUSA(발전기금 위원회)는 작은 기부금을 받고 미주동문 '인명록'을 동문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동문님의 기부금은 모교를 돕는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45(미국거주동문)을 책 만드는 제작비용과 우송료로 생각하시고 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교를 돕는 사업은 모든 동문의 작은 정성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문님의 많

내용

- 인명편, • 직업편, • 색인편
- 미주동창회 회칙
- 미주동창회 조직표
- 역대 미주동창회장
- 동창회 안내
- 평의원 명단
- 지역별 임원 명단
- 종신이사 명단
- 미주동창회 사업내역
- 총동창회 회원현황
- 해외동창회 연락처
- 총동창회 단대 동창회

동문 인명록 신청서

\$45(미국거주동문) 혹은 \$57(캐나다 거주동문)을 책 만드는 기본경비 및 우송료로 생각하시고 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문 인명록 신청

\$45을 기부합니다.(미국거주 동문) ☐

\$57을 기부합니다.(캐나다거주 동문) ☐

*캐나다거주 동문은 US 달러 머니오더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거주 동문에게는 부득이 국제운송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 지불방법: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Money Order(캐나다)

* 동문정보('인명록' 받아보실 곳)

작성일: 년 월 일

성명:(한글)		(영문)		성별:
단과대:	입학 년도:	졸업 년도:	대학원:	입학 년도:
전주소/집:				
현주소/집:				
전화/집:	Cell:	E-mail:		

개인비즈니스 ☐ , 직장 ☐ , 학교 ☐	업종구분:
비즈니스 이름:(한글)	(영문)
주소:	
전화:	Fax: E-mail:

* 보내실 곳: SNUAUSA (발전기금위원회)
131 West 35th St., (New York Golf Bldg.) New York, NY 10001
Tel: (212)563-9641, Fax: (212)563-9647, snuausa@gmail.com